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이기에
교육가족의 미래가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내 꿈의 무대 ON THE STAGE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엑스레이로 '예술' 하는 별난 의사
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 교수



「인생 이모작」
두 번째 직업은 '학교 엄마',
늘봄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며 늘~봄같은 황혼
늘봄학교 교사 김금숙 회원



「꿈 너머 꿈」
'두들치' 흥겨운 움직임 속
커지는 행복 줄어드는 학교폭력
파평초등학교 이현길 교사

- ☞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최초로 소개한_근대 연극의 아버지 현철 선생
- ☞ **배움 더하기** 오늘의 학교 창의성은 머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_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조윤경 교수
- ☞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7월의 무더위 잊을 두메산골 시원하게 즐기는 액티비티 천국_경상북도 문경
- ☞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공제회 숙박&교통&문화 혜택 한번에 모아보기



04 **여는 글**
창의가 샘솟는 계절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6 **The-K 예술가**
얇은뱀이꽃 당신 사랑인걸요

08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엑스레이로 '예술' 하는 별난 의사
_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 &
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 교수

12 **역사 속 숨은 영웅**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최초로 소개한
_ 근대 연극의 아버지 현철 선생

16 **우리 어렸을 적에**
생활 속 지혜를 배우는 실과 수업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18 **오늘의 학교**
창의성은 머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_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윤경 교수

22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AI가 대신해줄 수 없는 체육활동,
학교 체육은 어디로 가야할까

26 **꿈 너머 꿈**
'두둑' 흥겨운 움직임 속
커지는 행복, 줄어드는 학교폭력
_ 파평초등학교 이현길 교사

30 **고민 상담소**
아이도, 부모도 만족하는 성공적인 방학 보내기

32 **인생 이모작**
두 번째 직업은 '학교 엄마',
늘봄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며 늘~봄같은 황혼
_ 늘봄학교 교사 김금숙 회원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36 **방방곡곡 숨은 명소**
7월의 무더위 잊을 두메산골
시원하게 즐기는 액티비티 천국
경상북도 문경

42 **마음심**
특하고 치면 옥!
내 안에 또 다른 나 '분노'

44 **The-K 예방의학**
노년을 위협하는 병, 인지장애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다

46 **건강한 집밥**
우리 집 식탁에서 떠나는 여름 여행
세계의 여름 보양식

50 **DIY 리사이클링**
일상에서 하나씩 시작하는 환경보호 활동
용인대학교 환경동아리 '지구인'
&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여름휴가 용품

☞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54 **The-K Focus 1**
공제회 숙박&교통&문화 혜택 한 번에 모아보기

58 **The-K Focus 2**
음악으로 전한 사랑과 감사의 선물 The-K 콘서트: PRESENT

62 **The-K Family**
천혜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최고의 그린
The-K 소피아그린CC

66 **「The-K 매거진」 심고 달려가는 커피트릭**
울산광역시교육청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76 **The-K Family**
3대플러스치매공제 전용 특화 헬스케어서비스 신규 개시!

77 **The-K OX** 퀴즈

78 **회원 의견**

82 **「The-K 매거진」 온라인 웹진 이벤트**

83 **7월 즉석 당첨 이벤트**

- 발행일 2023년 7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해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창의가 샘솟는 계절



뜨거운 태양에 익숙해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름.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이즈음이면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작은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여행지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휴가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햇볕을 쬐고 야외 활동을 늘리는 일이 창의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높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준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행복감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일에서 조금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시도가
 밋밋한 일상에 창의적인 행복 한 스푼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번 7월호 ‘오늘의 학교’에서는 창의력은 ‘머리’가 아닌 ‘몸’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조운경 이화여대 교수의 ‘상상력과 창의력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영상의학 분야의 명의로서 엑스레이 아트라는 영역을 개척한 예술가이기도 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태섭 교수님을 만나 창작 활동이 주는 행복에 대해 들어봅니다.
 아이돌 댄스로 파평초등학교 스타가 된 이현길 교사와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은 ‘꿈 너머 꿈’에서 소개합니다.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 “Under The Sea!” 를 통해 해양정화 활동을 펼쳐 온
 환경동아리 ‘지구인’의 지구 지킴이 활동은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만날 수 있으며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용품을 만들어봅니다.
 오직 회원들만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준비한 숙박·교통·문화 혜택 정보를 담았으며
 The-K 콘서트의 뜨거웠던 현장을 지상중계합니다.
 이번 커피트릭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쓰는 강원원주세브란스 의료진들의 든든한 모습에 감동하고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을 꿈꾸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임직원들의 서로를 향한 응원에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의 시도가 삶을 긍정적인 창의력으로 물들이고,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㉔

얇은뱅이꽃 당신 사랑인걸요



나 좋아?(I love you) ¹ 정태섭(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X-ray art 60X47cm, 2016

작가 노트 :

실제 튤립을 X-Ray로 촬영하여 꽃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꽃도 서로가 사랑하면서 뺨을 맞대면 붉어지고 자연스럽게 어깨위로 팔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했다. 따뜻한 느낌의 핑크빛 배경색은 두 사람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나타내고, 노란 튤립은 남성, 붉은 튤립은 여성을 의미한다.

제비꽃의 노래

고
증
식

그대 길목에 핀 나는 한 송이 외로운 들꽃이어요
바람 한 줄기에도 몸을 꺾어
보랏빛 가녀린 울음 흘날리지만
어김없이 돌아와 또 그 자릴 지키는
변치 않는 그대 그리움이어요
날 바라보는 당신 눈길은
세월 따라
마음 따라 흔들리지만
보셔요 올해도 이렇게 볼 붉혀 선
여린 손길과 수줍은 나의 눈길
언제라도 다녀가셔요
힘겨운 당신의 좁은 어깨가
봄 햇살 한 줌 품지 못해 흔들릴 때도
아시잖아요
그대 눈길에 달려와 피었다가
그대 더운 숨결에 말없이 녹아드는
나는 한 떨기 제비꽃인걸요
얇은뱅이 꽃 당신 사랑인걸요

WRITER



고증식 시인은 1959년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 충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밀양여중과 밀양 밀성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2020년 2월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강연, 글쓰기, 문학회 활동 등을 하며 지내고 있다. 1994년 『한민족문학』 추천으로 문단에 나와 『환한 저녁』, 『단절』, 『하루만 더』, 『얼떨결에』 등의 시집과 시평집 『아직도 처음이다』를 냈으며, 한국작가회의의 이사 등을 맡기도 했다.

※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엑스레이로 '예술' 하는 별난 의사 "무엇이 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엑스레이아티스트 정태섭 교수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누구든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지만, 삶의 관성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 젊으면 젊은 대로 '성공해야 한다'는 세속적 목표에 얽매이고, 나이 들면 든 대로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의 한계에 발목이 잡힌다. 정태섭 교수 역시 의사 역할에 만족하며 살아도 충분했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그는 '엑스레이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인생 경로를 향해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글 정라희 / 사진 김수



엑스레이아티스트 정태섭 교수의 작품인 '꽃' (꽃)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동시에 엑스레이 아트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정태섭 교수의 좋은 생각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대로 살고 싶다는 꿈처럼 살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살았노라' 말하는 이는 드물다. 정태섭 교수도 한때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았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의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고, 의사가 된 후에도 교수로 자리 잡고자 병원과 연구실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의사로서 인정받고 현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행복한 기억은 남아 있지 않았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병원 생활은 변함없이 분주한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좀 더 좋아하는 일을 고민하고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갔다.

“어린 시절에는 호기심 대장이었어요. 미술 교사인 아버지께서 그 시절에는 드물게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빈치식 교육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종종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발명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생각이 달라지니 생활도 달라졌다. 예전과 똑같이 병원에서 일과를 보내도,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즐기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병원에서 머리 쓰는 일로 지칠 때면 소소한 발명품을 만들며 머리를 식혔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병원 옥상을 작은 천문대로 만들기도 했다. 그는 동네와 병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이 행사를 10년간 이어갔다. 아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좀 더 알리고 싶어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을 2년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 당시의 호기심을 소환하니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영동세브란스병원 근무시절 열었던 어린이 밤하늘 별 관측행사



“나이와 직업을 잇으면 사는 게 재밌어집니다. 제 취미는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 취미를 다 하고 사느냐’며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화폐 수집이나 별자리 관측, 소라 껍데기 스피커나 진공관 앰프 만들기처럼 일상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꾸준히 하고 즐길 뿐입니다. 그런 취미들이 실제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전해 주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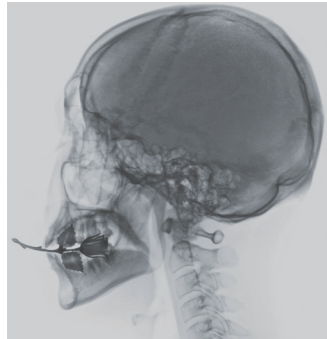
엑스레이에서 발견한 예술의 세계

엑스레이 아트 역시 처음에는 평소와 다른 색다른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전공인 영상의학은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혹은 영상을 판독해 치료에 이용하는 분야다. 내과처럼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는 임상 의사와 달리 엑스레이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얻은 영상 자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영상의학과를 ‘엑스레이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판독실에 앉아서 영상 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따금 독특한 형상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트’ 모양 같은 것이지요. 그런 걸 발견하면 의학자로서 마음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몸속 어딘가에 따스한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상력 덕분일까. 그를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게 한 첫 작품도 운명처럼 떠올랐다. 때는 2006년 가을밤,

꿈꾸는 카라 (Dreaming Calla)



입 속의 검은 잎 (Black leaf in the mouth)

장미의 영혼 (Soul of rose)

TV를 보다가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를 접하고 문득 그 장면을 엑스레이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장롱 서랍에서 장미 꽃잎 모양의 브로치를 찾아 입에 넣고 엑스레이로 찍으면 ‘입 속의 검은 잎’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브로치를 물고 사진을 찍으니 예전에 치아 치료를 받은 흔적이 눈에 띄더라고요. 치아 건강에 자신 있는 후배가 모델로 선뜻 나서줘 제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로 표현한 ‘입 속의 검은 잎’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반응이 터졌고,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도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러다 누군가 지나가듯 “전시회는 언제 하느냐”라고 물었고, 영겁결에 ‘6개월 뒤 첫 전시회’라는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났다. 이미 뻔한 말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 부지런히 작품을 모아 인사동 갤러리를 찾아다녔다. 당시 그의 나이는 쉰셋. 일반적인 직장인이자면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가까웠지만, 그는 사회 초년생의 심정으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갤러리의 문을 두드렸다. 열두 번의 거절 끝에 겨우 찾은 갤러리에서 비로소 ‘단체전을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고, 그렇게 엑스레이 아티스트로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나이 드는 일에도 좋은 점이 있다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정태섭 교수는 여러 차례 개인전과 작품전을 열었고 국제 아트페어에 초청되는 엑스레이 아티스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뿐 아니라 사진학과 전공 교재에도 소개되었다. 50대이던 그때, 여러 갤러리의 반복되는 거절에 ‘그래, 이 나이에 무슨...’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면 ‘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저는 예술계에서는 ‘늦깎이’였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몸담아 온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이나 명성이 있으니 내심 ‘이만큼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높고요. 행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껏 쌓아온 이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주저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늦깎이로 시작하는 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저 역시 영상의학을 통해 축적해 온 영상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에 엑스레이 아트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정태섭 교수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은 더 있다”라고 말한다. 세월의 파고를 지나면서 작은 실패나 거절에 연연하지 않는 법을 알고, 나이가 조금은 뻘뻘하게 다음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까닭이다.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



“전시회를 열 수 있을까 싶어 찾아간 갤러리에서 거절당할 때 나중에는 ‘거절하는 이유라도 알자’ 싶어 그때마다 피드백을 받아 메모로 정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속에 작가로 향하는 비결이 숨어 있었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얼굴 두께가 1밀리미터씩 두꺼워진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눈앞의 실패에 연연했다면 저의 인생 2막은 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준비된 답이 아닌 과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

2019년 8월에 반평생 몸담아 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정태섭 교수는 2019년 9월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 영상의학과로 자리를 옮겨 변함없이 의사와 엑스레이 아티스트라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에 작품을 기증해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지난 4월에도 광화문에서 약 한 달 동안 개인전을 열었다.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라는 전시회 제목은 두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담은 신작에서 따왔다. 병원에서 자료 화면으로 볼 때는 흑백 영상으로만 보이던 엑스레이도, 화사한 꽃이나 역동적인 사람의 자세와 만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예술의 매개체가 된다. 엑스레이로 촬영할 수 있는 크기와 구역은 한정적인

까닭에 대형 작품은 수십 번을 나눠 찍고 후반 작업으로 이어 붙여야 한다. 한 작품을 만들 때는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몇 날 며칠이 걸리지만 병원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개인 시간을 쪼개 작업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시간의 흐름을 잊을 만큼 몰입감을 느낀다.

얼핏 보면 성공한 의사의 외유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그의 선택은 세속적 판단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기준이 있었다. 그렇기에 전공을 택할 때도 당시 한국에서는 낯설었던 영상의학과를 선택해 ‘국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 1번’이 되었고, 그 사이 의학계에서 영상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요즘, 그는 오히려 ‘답이 보이는 길’만을 택하는 세태를 아쉬워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답을 먼저 가르쳐주기보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과정을 겪어보기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빨리 얻는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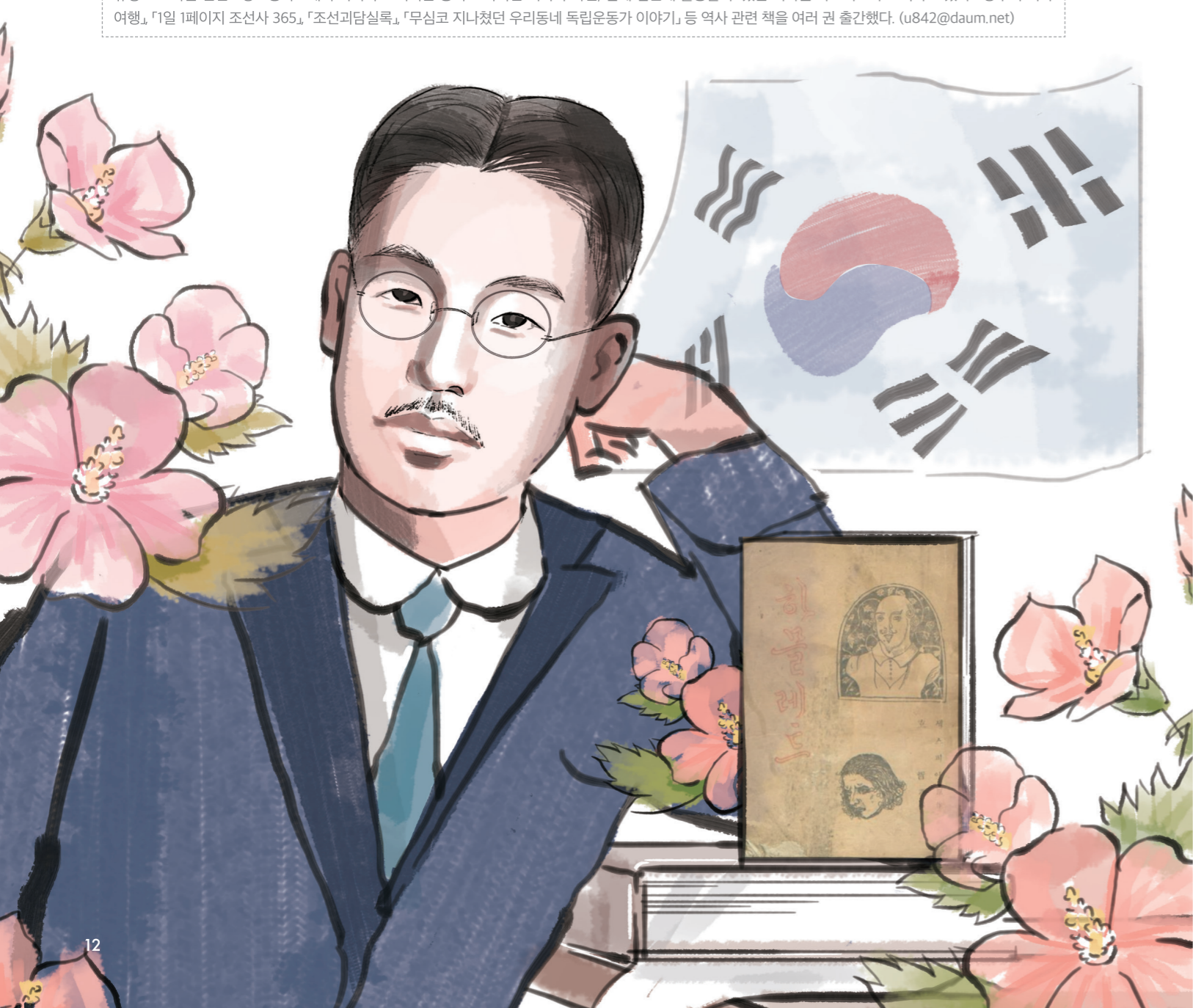
그는 말한다. 스스로 답을 찾을 때는 열 가지 질문 중 하나의 답을 얻기가 쉽지 않지만, 그 하나의 답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이 즐거울 리 없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온전한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별난 의사’를 자처한다. ㉞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최초로 소개한 근대 연극의 아버지 현철 선생

현철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비판과 공론의 중심이던 문예지 「개벽」의 학예부장으로 활약하는 동안 소설 이론 및 연극과 희곡의 주요 기능, 문화 관련 시론 전반을 두루 다루고, 특히 민중극 운동의 중요성을 논문으로 정리했으며, 그 실현을 위해 헌신했다. 1920년대 초에 단역 배우에서 출발해 최초의 연극학교를 세운 공연예술 문화의 독보적 선구자로, 우리 연극사 중 신파극에서 정통 근대극으로의 전환 과정에 징검다리를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이 마주한 국난 극복의 계몽주의적 대안으로 서양 연극을 주목했다. 노년에는 극복의 대상이지만 하던 전통으로 회귀해 국극과 국악의 보급에 앞장서면서 말 그대로 우리 연극의 기틀진 토양을 위한 한 알의 소중한 밀알이 되어주었다.

글 유정호 인천소방고등학교 역사교사

유정호 교사는 인천소방고등학교에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구석 역사 여행」,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조선과담실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 역사 관련 책을 여러 권 출간했다. (u842@daum.net)



조금은 생소한 위인, 현철 선생

K-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K-문화는 한반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국가와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 분야도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중에는 연극도 있다. 연극이라고 하면 단순히 배우가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무대연출, 분장, 연기, 춤, 노래 등이 포함되는 종합예술이다. 연극이야말로 예술 활동의 종합체이며 기본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극으로 시작해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와 영화 대본을 만든 작가나 연출가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난다. 또 오랜 세월 연극을 통해 기본기를 닦은 뒤 드라마와 영화 분야로 진출해 사랑받는 연기자도 자주 만난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극을 하던 시절 배고프고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절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순간이며,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그 이면에는 연극이 대한민국 문화 발전의 초석이라는 자긍심이 깔려 있다. 이런 풍토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연극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모인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 시작점에 100여 년 전 활동한 연극인 현철



현철 선생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891~1965, 본명 현희운) 선생이 있다. 그는 대중에게 무시당하던 배우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연극을 통해 희로애락의 감정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인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독립이라는 당위성을 심어주고자 했다.

엘리트 코스를 벗어나 연극에 빠진 청년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현철 선생은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도쿄의 세이소쿠영어학원에서 공부하다 진로를 바꿔 메이지대학교 법과에서 공부했다. 이때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3년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다. 혈기 왕성하던 20대 초반 현철 선생은 국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매일 가슴 깊은 곳에서 분

노가 치솟아 올랐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민족적 의력(意力)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연극이 발달하지 못하였다'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당시 현철 선생의 심경을 195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연극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한심스러웠고, 국민의 의지력을 기르려면 연극이 발전되어야 하겠다고 마음 한구석에 다짐했다. 국민의 의지력을 강인하게 길러서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자 이렇게 결심한 나는 드디어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연극의 길로 발을 디디기로 하고 시마무라 호케스(島村抱月)*가 주재하는 예술좌에 입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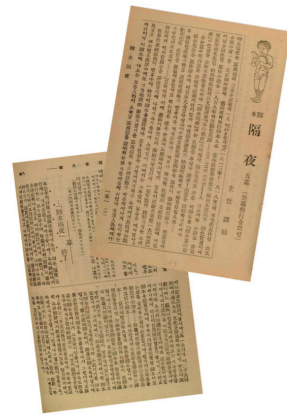
그는 단순히 연극을 좋아해서 진로를 바꾼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 결정은 현철 선생 스스로 꿈을 포기하는 것이며, 앞으로 평탄할 수 있는 삶 대신 고단한 삶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시마무라 호케스(島村抱月): 일본 근대극 운동의 선구자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

연극을 배우기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다

연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현철 선생은 무작정 시마무라가 운영하는 게이주쓰좌 부속 연극학교에 입학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연극학교에 들어간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들어서야 중국과 인도에 서양 연극이 소개될 정도여서 일본 외에는 연극을 배울 곳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분장술과 화장품 제조법 등 연극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여기에는 서양 연극론처럼 이론 공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철 선생은 4년간 연극학교에서 '부활' 같은 대중적 신극과 '바다의 부인' 같은 번역극 공연에 연기자로 참여했다. 이론과 실기 모두를 알아야 한국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극을 제작할 수 있다고 믿으며 힘든 시기를 버텼다. 그런데도 정답을 찾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느껴졌다. 특히 서양 연극과 전통극,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된 신파극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할지 정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높은 인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던 중국의 근대극 배우 어우양위첸(歐陽予倩)을 만났다. 그리고 그가 있는 상지 연극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도와주며 2년 동안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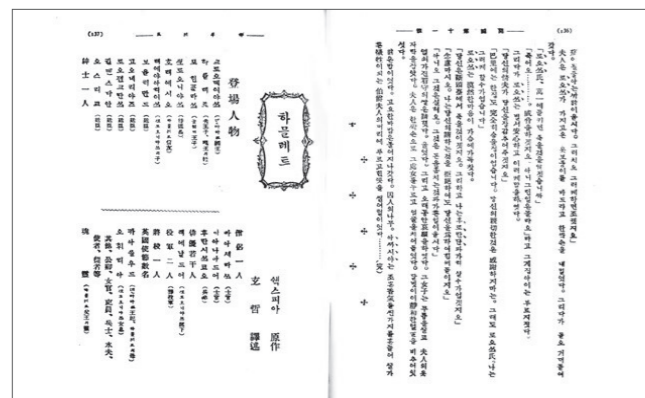


문예지 '개벽', 현철 '격야'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본과 중국의 연극을 몸소 체험해 익힌 현철 선생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1919년이였다. 이때는 3·1운동으로 민족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독립을 향한 의지와 노력을 전 계층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연극을 통해 한국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판단했다. 천도교의 재정 후원을 받아 만드는 종합잡지 '개벽'의 문예 부장으로 취임한 그는 연극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알렸다. '희곡의 개요', '현당극답',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등의 연극 비평을 통해 연극이야말로 한국인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하믈레트(Hamlet 햄릿)
(1923.05.26.)
[출처: 동아일보]



현철 선생이 1921년~1922년 월간지 개벽에 연재한 '하믈레트'를 1923년 박문서관에서 출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조선배우학교를 설립하다



조선배우학교 로고

현철 선생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중극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1923년 동국문화협회를 창설했다. 그러고는 동국문화협회 산하에 '항일 이념하에 단합할 수 있는 민중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배우를 양성하는 조선배우학교를 설립했다. '배우 양성의 시대 요구', '인격자의 배우를 양성', '사회가 요구하는 배우' 등 조선배우학교 학제는 그가 연극을 통해 무엇을 꿈꾸고 바랐는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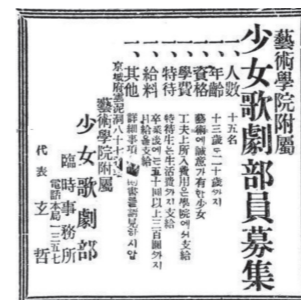
조선배우학교는 2년제 학교로 연극과와 영화극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마다 각각 1년 기한의 보통과와 고등과를 두고 예술개론, 각본연구, 군중심리학, 무대극감상법, 표정체조, 조선가곡, 분장술, 가극실습 등 23개 과목을 가르쳤다. 1925년 40여 명의 학생으로 조선배우학교가 개교했지만 현철 선생은 꿈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연극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었다. 당시 배우는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대부분 사람은 배우를 탄따라, 광대로 부르며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추구하던 연극이 민중에게는 낯설고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현철 선생은 대중이 좋아하는 전통극과 일본에서 들어온 신파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쓴 「현당극답」에서는 '내가 지금 우리 조선에는 연극이 없다고 하면 독자 제위는 나를 욕하고 허언이라 하며 그 연례(演例)로 소위 구극(舊劇)에는 춘향가나 심청가를 들고 신파로는 임성구, 김도산, 김소량을 들어 내게 욕박할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던 극단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극과학상(劇科學)으로 보아 연극이 아니고 유희이며 체조라고 한다'라며 전통극과 신파극을 강하게 무시했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는 자극적 상업 연극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현철 선생의 생각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조선배우학교 제1기 학생들이 올린 입센의 '인형의 집'과

체호프의 '곰', '개' 공연은 지식층에게 환영받았지만 대다수 사람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그를 향해 신파연극의 주도자 이기세는 "현철이 주장하는 형태의 연극이 조선 사회에서 실현되어야겠지만 민중이 연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네. 연극을 천대하는 현 사회에서는 시기상조일세"라며 비판했다. 이기세의 말처럼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한 조선배우학교는 개교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위기에 빠졌다. 수입이 적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자 현철 선생과 학생 간 마찰이 발생했다.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조선배우학교는 2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하지만 현철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1927년 조선극장을 경영하며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민중을 계몽하고자 했다. 1928년에는 동국문화협회를 예술문화협회로 바꾸고 배우양성소를 설립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뜻을 함께하겠다는 조선배우학교 1기 졸업생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양질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 용기와 힘을 얻은 그는 경성예술학원 야학부를 추가로 설립했다. 이후로도 꾸준히 연극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연기자 훈련 강습소인 조선배우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1926)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녀 가극부 부원 모집 포스터
[출처: 동아일보]

암울했던 시대 부단한 노력이 가져온 변화

현철 선생의 노력은 일제강점기 말이 될수록 빛을 잃어갔다. 일제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수탈이 더욱 심해졌고, 한국인은 경제적 빈곤으로 연극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더불어 일제는 연극을 통해 그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일어날까 경계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다고 연극에 대한 그의 생각과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그는 「한국 급 한국인」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조선배우학교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분단 아래 혼란스러운 현실로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일까, 현철 선생은 「고우 윤백남에 얽힌 회상」에서 "나의 자서전 제4편에 사면초가라는 한 편이 있다. 이것은 내가 일생을 걸어 나온 행로 중에 예술학원으로부터 조선배우학교, 조선영화제작소로 여러 가지 문예 방면의 사업 설계라고 할까. 이러한 것의 실패담을 말할 것이다. 나는 헛된 생에서 헛된 사(死)로 돌아가는 가시밭길에서"라며 자신의 연극 인생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그가 걸어온 연극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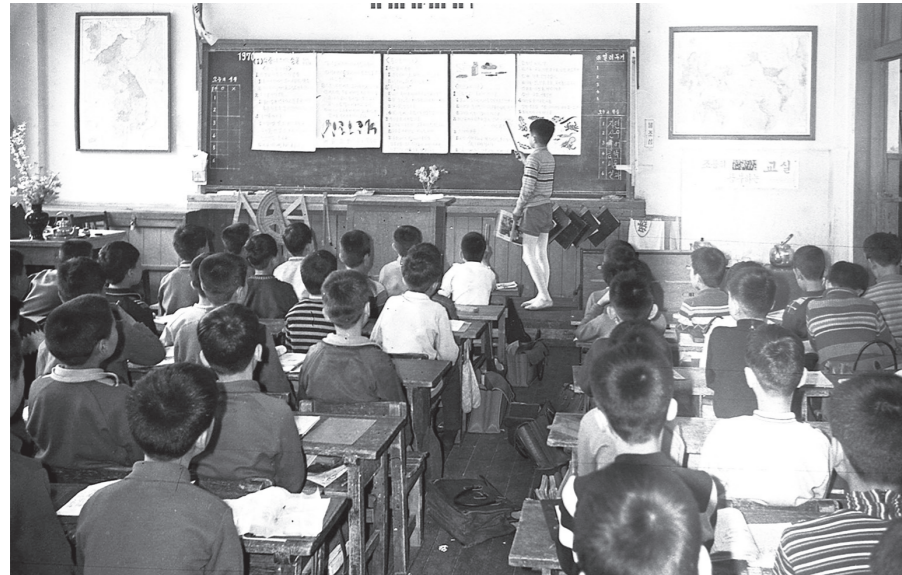
여기에 "10여 년의 활동 역사를 쌓아온 신파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선구자적 의식만 앞세웠던 점은 한계다", "현철의 연극론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는 그의 독창적인 주창(主唱)의 글이 아니고 일본 구와키 겐요쿠가 쓴 '세계 개조의 철학적 기초'라는 글을 요약, 발췌, 인용한 것이다" 등 비판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모든 국가가 연극을 알지 못했다. 그런 현실에서 현철 선생은 일본 연극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가 연극을 통해 무엇을 꿈꿨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연극을 통해 한국인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주역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개벽'에 발표한 '소설개요'와 '소설연구법'은 우리나라 소설의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희곡의 개요'는 희곡의 구조와 서양의 희곡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연극이 체계화되는 기초가 되었다. 힘들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한 걸어온 그가 있기에 우리의 연극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 지금에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 반문해본다. (K)

생활 속 지혜를 배우는 실과 수업



실과는 초등학교 9개 교과 중 하나로 실기 실습이 꼭 필요한 교과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기가 중요시된다. 실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학교 입시를 치르던 시대에는 다른 교과에 비해 실과 수업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도 있었고, 1968년 중학교 무시험 배정으로 전환된 후에도 실습 시설이 부족하면 가볍게 다루기도 했다. 또한 농촌 아이들은 집에서 농사를 지어 사육과 재배 경험이 있었기에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과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도회지에 근무하는 대부분 교사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실과 학습을 통해 실습 체험을 쌓아주고자 노력했다. 남교사가 가사 실습을, 여교사는 사육 재배 실습을 어려워 더러는 교환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실과 수업은 주지 교과나 예체능 교과 못지않게 중요하고, 교사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여유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㉞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
(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실과 조사보고 학습 (1970)

실과의 이론을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조를 나눠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며 상호 보완하는 학습 방법은 매우 흥미로웠다.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병아리 기르기 체험 (1971)

농촌의 한 어린이가 마당 한쪽에 병아리 집을 놓아두고 아침저녁 물과 모이를 주면서 살펴보고 있다. 병아리에서 어미 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다. 도회지 학교 앞에서는 부화기에서 막 깨어난 병아리를 아이들에게 분양하며 동심을 자극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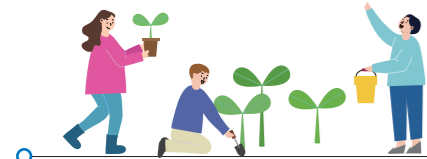


조리하기 가사 실습 (1971)

아이들이 준비해 온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하는 실습을 하고 있다. 남녀 구별 없이 조리법을 배우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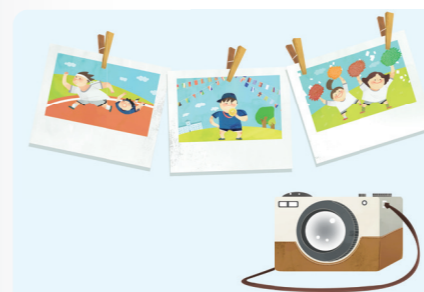
조리 실습 밀가루 반죽하기 (1971)

소매를 걸어붙이고 밀가루를 반죽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실습은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 되었다.



재배 실습 (1970)

도회지 아이들은 재배 실습할 공간이 없으므로 화분에 화초나 작물을 심어 교실 창가 공간 등 가까운 곳에 놓아 두고 스스로 물을 주고 가꾸보면서 소중한 재배 체험을 하기도 했다. 교실이 비좁은 경우 집에서 키위와 품평회를 하기도 했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창의성은 머리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윤경 교수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면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어떻게'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지 알려주는 이는 드물다. 시인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초현실주의 시를 전공한 불문학자이자 창의성 전문가로 '창의행동력'을 저술한 조윤경 교수는 "창조적 사고는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한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모범생을 양산하는 교육 현실 속 창의성 교육

조윤경 교수에게 창의성은 익숙한 개념이다. 색다른 상상력이 언어 속에 겹겹이 펼쳐진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를 공부하면서 문학을 통한 창의성을 오래도록 고민해 온 까닭이다.

“처음에는 문학적 상상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언어 실험에 담긴 문학적 기법은 결국 창의성의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불문학자로서 연구 영역에 있던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적 시도로 이어진 것은 2009년부터다. 때마침 이화여대에서 대학 차원에서 주제 통합형 교양 강의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조윤경 교수는 '21세기 문화와 상상력' 수업을 기획·개발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문학으로 현시대의 흐름을 살피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교양 강의지만 재학 중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강의로, 인문대생은 물론 미대생과 공대생 등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어우러져 실험적 학습을 해보는 수업이었다.

“지금 아주 유명하지 않더라도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인물을 발굴해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상상력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인맥과 역량을 발휘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을 인터뷰했어요.”

당시 경험을 통해 대학 안에서 창의 교육의 가능성을 본 조윤경 교수는 '창조와 상상의 기술'이라는 교양 강의를 새롭게 개발했다. 수백 명이 모인 대형 강의에서 색다른 조합의 결과물이 쏟아지면서, 그도 학생들도 특별한 활력을 얻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과 손잡고 초·중·고등학교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창의 교육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있었다. 다양한 창의성 이론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일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대학에서 창의성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대다수 학생이 무척 성실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지만, 그 이상을 벗어나는 시도는 잘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이 시대의 의미 있는 문화 창조자를 인터뷰하는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한 팀이 배관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자신의 작품은 만질 수 있으며, 계상초등학교 운동장에 놀이기구처럼 전시되어 있다'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학교에 가서 작품을 만져볼 생각을 한 학생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과제 범위에 없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진짜 궁금'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색길을 존중하는 교육, 책이 아닌 몸으로 익히는 배움

한국과 프랑스 교육에 익숙했던 조윤경 교수에게 때마침 미국 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왔다. 2015년 연구년을 맞은 그에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년간 머물면서 캘리포니아 공교육을 취재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단 홈페이지 내 블로그에 연재했다.



“아이가 다니던 캘리포니아의 공립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자원봉사자로서 수업을 가까이에서 참관할 수 있었죠. 이전에도 한국에 핀란드 교육, 프랑스 교육 붐이 일어 취재한 적이 있어요. 당시 살펴본 핀란드 교육에 대한 인상은 공간에서 온 창의성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환경과 관련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지만, 사실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대신 프랑스의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보니 미국이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생각해 보니 이보다 더 교육의 고수들이 없더라고요.”

교과서 하나 펴지 않고, 교사가 어디선가 가져온 암석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전에 프로젝트 설계를 하는 한국의 교육 방식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설계를 하지 않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든 과정에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설령 다른 길로 새더라도 그 길로 함께 가죠. 만약 진도를 맞추는 수업이었다면 판 길로 새는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들도 초조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을 양 떼처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같이 하늘을 보고 풀도 뜯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죠. 예를 들어 역사 수업을 하면 역사적 인물이 되어 연기도 해보고, 역사적 현장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특히 기억에 남은 수업은 연극이었다. 배우가 직접 지도하는 연극 수업은 정해진 대본을 전혀 보지 않았다. 얼핏 아이들과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사자가 되기도 하고 바위가 되기도 하면서 움직임을 탐구하고 캐릭터를 표현하는 법을 체득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공연을 올릴 때 연출로 적용됐다. 일요일이면 학부모들도 함께 공연 소품을 만들었다. 지루한 반복이 아닌 성장과 진화의 과정으로 공연을 만들어 간 셈이다.

궁금하면 바로 움직이고 몸으로 새로움을 찾는 ‘창의행동력’

조운경 교수는 1년 동안 캘리포니아 공립초등학교 수업을 세세하게 관찰한 결과를 2017년 「창의행동력」이라는 책으로 묶었다. 그가 새롭게 고안한 개념인 ‘창의행동력’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 자기만의 창의적 결과물을 완성하는 힘”을 가리킨다. ‘사고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생각이 저절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틀에 박힌 사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근원을 살펴보면 틀에 박힌 행동이 생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창의행동력은 반드시 자기 머리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보고 동료와

대화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창의성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창의성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자기 머릿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창의행동력이 있느냐에 달린 것이죠.”

조운경 교수는 “창의행동력을 키우려면 창의성을 지식 습득의 도구나 목표 자체로 여기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서핑의 고장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계절 내내 파도타기를 배우거나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보드에 엮드려 양손을 젓는 패들링(paddling)을 하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다음에는 밀려드는 파도를 응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파도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도에 올라타지요. 이 세 단계는 창의행동력의 실천지침인 ‘행동호기심’, ‘행동발견력’, ‘행동결정력’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창의행동력의 1단계인 ‘행동호기심’은 궁금증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정보를 찾아보거나 실험해 보고, 전문가의 메일 주소를 알아내 메일을 보내는 등 호기심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인 ‘행동발견력’은



흥미로운 질문과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술 수업



몸으로 사물이 되어보는 연극활동



딸과 함께한 LA카운티뮤지엄 견학

일상 가운데 문득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나 현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3단계인 ‘행동결정력’은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끝까지 완성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 내는 창의 인재로 자랄 수 있다.

“저는 ‘표류’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적어도 창의성 교육만큼은 A에서 B로 직진하는 지름길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파도에서 허우적댄 경험이 있어야 더 큰 파도에도 올라탈 수 있듯이, 오히려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지나갈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죠.”

표류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필요하다. 오히려 어른들이 먼저 지름길을 알려주지 못해 안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른들이 표류의 과정을 참지 못하면 아이들도 당연히 참기 어려워요. 헤매는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자신만의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서 답을 빠르게 얻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더 커졌다. 조운경 교수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기술에 종속되기보다 “기술을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인간이 우세할 방법은 결국 행동에 있지 않을까. 새삼 창의행동력의 의미가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진다. ㉔

시가 대신해줄 수 없는 체육활동, 학교 체육은 어디로 가야할까

우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기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학교 체육 분야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올 학교 체육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는 몸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하며, 학교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글 이규일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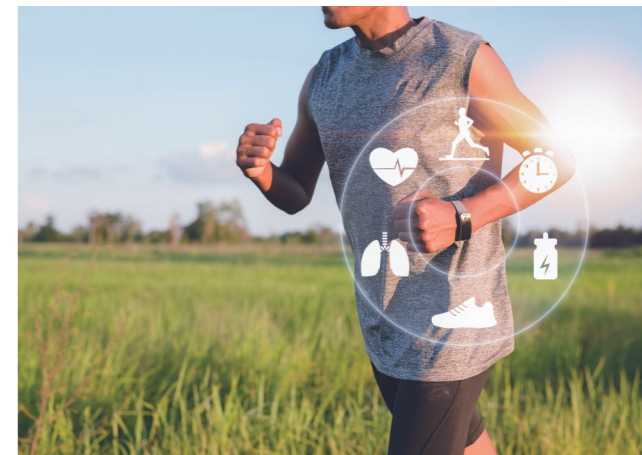
이규일 교수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후, 2012년부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신체활동의 뇌과학과 철학이며 청소년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학생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 활동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감소한 청소년 신체 활동 수준이 일상으로 복귀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래 낮았던 신체 활동량이 코로나19로 더 낮아져 현재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 환경 악화, 야외 활동 시간 감소, 좌식 여가 문화, 사물인터넷 결합에 따른 편리한 집안 생활 등 신체 활동의 마이너스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좌식 생활 습관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 수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기기 활용 수준을 보고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인공지능 기기는 '지식 제공자'로서 기능한다. 지식 제공자로서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의 한계였던 지식의 양과 정확성, 시공간의 제약, 신체적 제약이 따르는 학습자의 접근성 문제, 더 나아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기 조절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은 '학습자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학습자의 몸이나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 수집된 학습자의 움직임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상담' 기능이다. 인공지능의 상담 능력은 어떤 대화 알고리즘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체육 수업 관련 행동을 입력하면,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행동, 신체 활동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담 역시 가능하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교수 능력은 끝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교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상용화 수준에 따라, 교수의 주변부에 머물던 인공지능은 교수의 중심으로 이동해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기는 유용한 도구를 넘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탑재로 독립된 교수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인공지능 교사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 체육교사는 어떤 강점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오히려 중요해진 몸

인간의 마음은 신체를 통해 구체화 된다. 가구라는 추상적 개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앉아본 것, 즉 몸의 감각과 운동으로 체험한 주관적 경험들이 떠오를 것이다. 추상적 개념이라는 마음의 형식은 몸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am is in the house'라는 문장을 떠올려보자. 이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집의 경계에 따른 샘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원천은 움직임이며 안과 밖을 구분한 신체적 경험에 있다. 또한 애정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따뜻함으로 이해하는데, 이는 엄마와의 포옹 등에서 느낀 따뜻함(신체적 경험)을 애정(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며 신체화되어 있다.

인간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경험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경험은 표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표준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체화된 경험을 이해하지도, 실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습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원천은 몸에 근거한 경험이다.

정량화할 수 없는 나만의 신체 경험

몸은 건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 극적 수행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 윤리적 및 도덕적 행동을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다움은 몸의 주관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경험은 표준화될 수도 정량화될 수도 없는 경험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손쉽게 대체되지 않는 살아 있는 인간의 경험이다. 이처럼 향후 학교 체육에서는 인간다움의 토대가 되는 몸의 주관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 있는 몸의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 맥락에서 설명된다. 즉 우리의 움직임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있는 몸이 감각하고, 지각하고, 마음의 사고 작용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변적이다. 그 때문에 살아 있는 몸의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내가 지금 방금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뇌를 가지고 진화해 왔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염원한다는 것이다. 'Gen Z(Z 세대)'라고 불리는 청소년은 현실보다 가상 세계가 더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다. 이들은 어쩌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가 더 익숙할지 모른다. 공동체 생활에 더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앞선 세대와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의 뇌를 지니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편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유대 관계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는 타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라는 비일상이 일상화된 현재 학교 체육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에게 타인과 함께하는 유일한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부산교육청에서는 '아침 체인지'라는 철학 아래 매일 오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적 의의 중 하나를 '신체 부대낌'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가는 시대,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람 간 부대낌을 느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 경험의 본질이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팀십(teamship)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같은 팀 혹은 상대 팀으로 함께 이기고, 지고, 즐겁기 때문에 스포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교 체육에서는 팀십(teamship)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맞춤 수업과 비직선적 체육의 도입 필요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즉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 수업은 언제나 체육교육의 이상 중 하나였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탑재한 디지털 기기는 이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성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기반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90% 이상 의사소통할 수 있었고, 학생의 학습 흥미도와 학습 태도 증진에 효과적이었다. 디지털 기기와 함께 체육교육의 방법 역시 직선적 교육에서 비직선적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직선적 교육이란 첫째, 표준 체계의 전환이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체육 수업을 규격화시킨다.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움직임 가능성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상정하는 체육교육에서 표준은 오히려 다양성과 가능성을 저해한다. 둘째, 습득에서 참여로의 메타포(metaphor) 전환이다. 전통적으로 체육교육에서 학습은 습득으로 은유해 왔으나 개인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학습은 참여 그 자체로 은유할 필요가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수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그동안 교육의 최고의 미덕은 양질의 피드백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었다. 반면,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을 간섭하며 개인의 내밀한 체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㉔



'두둠치' 흥겨운 움직임 속 커지는 행복, 줄어드는 학교폭력



파평초등학교 이현길 교사

‘스스로 행복한 사람은 저절로 주위를 행복하게 한다.’ 막연히 품고 있던 그 생각을 이현길 교사는 이제 확실히 믿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오랜 취미이자 특기인 춤을 추면서 생기 없던 교실에 활기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현길쌤의 두둠치’를 개설해 반 아이들과 댄스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가을. 교사의 행복이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는 오늘도 말이 아닌 몸으로 증명해 보인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믿으며 즐거운 댄스 수업을 하는 이현길 교사의 꿈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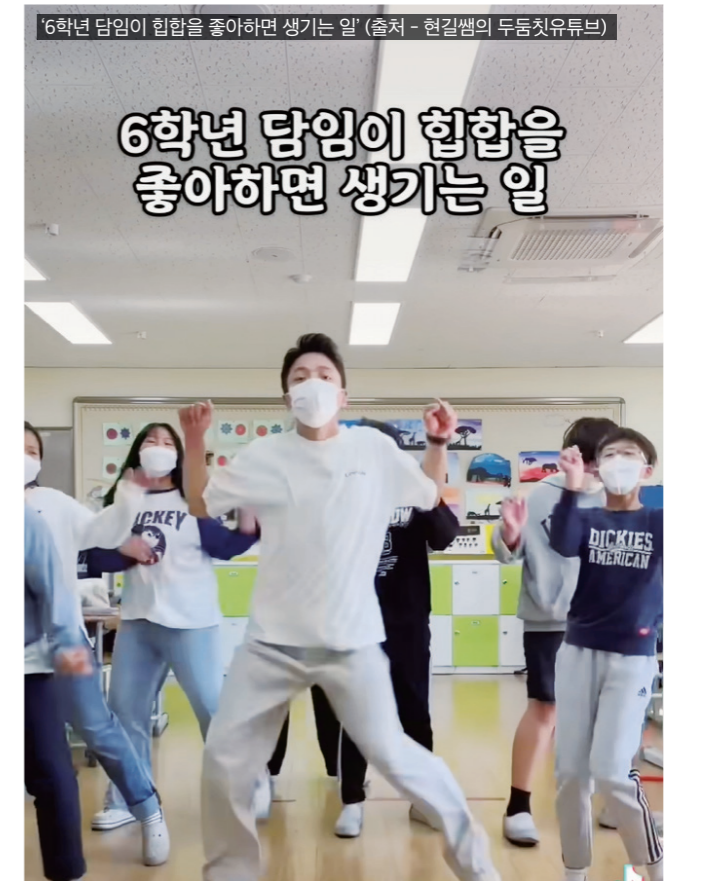
수요일 오후의 ‘댄스 활력소’

뒷산의 새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지저귀다. 학교 밖이 그 자체로 ‘자연’인 파주 파평초등학교. 일주일 중 수업이 가장 일찍 끝나는 수요일 오후가 되면, 이 학교 6학년 1반 교실은 댄스 교습소로 변모한다. 아니 교습소가 아니라 ‘활력소’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대끼며 함께 익혀가는 까닭이다. 동작이 틀리면 틀려서, 율동이 맞으면 맞아서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설 새 없이 가르르 웃어대니 스트레스가 사르르 녹아내린다. “우리 학교는 한 학년이 한 반만 있어요. 그래서 전 학년이 1반만 있습니다. 제가 맡은 6학년은 모두 열다섯 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라 서로 아주 애뜻해요. 이 루 말할 수 없이 순수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춤을 아이들이 함께 취주는 거라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믿을 수 없는 것은 이토록 쾌활한 아이들이 학기 초만 해도 매우 수줍고 조용했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그가 “좀 떠들어 달라”라고 부탁했을까. 그러던 아이들이 불과 석 달 만에 조잘대고 깔깔대며 학교생활을 한다. 그동안 함께 취온 춤 덕분이다. 잘 못 취도 아무 문제가 없다. 리듬에 몸을 맡긴 채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같이 즐기는 것, 중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다. 정식 연습은 수요일 방과 후에 있지만 아이들은 틈틈이 동작을 익히며 논다. 춤이 물처럼 삶에 흐른다. “열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그 분위기를 좋아할 뿐 춤추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부탁했어요. 한 친구는 촬영을, 또 한 친구는 DJ를 맡아요. 두 아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참 좋아합니다.”

수백만 명의 마음을 훔친 ‘댄스 챌린지’

이현길 교사의 ‘춤 생활’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유아기부터 댄스 가수들의 춤을 곧잘 따라 추던 그는 청소년기는 물론 교대 재학 중일 때도, 교사가 된 이후에도 언제나 춤과 함께였다. 하지만 춤을 교육과 연결할 확신은 없었다. 댄스를 교실로 끌어오려면 학교 관리자,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지지가 두루 뒷받침되어야 했다. 꿈만 같았던 그 일이 이 학교에서 가능해졌다. 부천 상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그는 2021년 3월 작은 학교에 대한 로망을 품고 파평초등

학교로 지원해 왔다. 춤을 교육에 활용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를 ‘기다렸다는 듯’ 모두 환영해 줬다. “한 학년에 학급이 하나뿐이라는 게 주효했어요. 한 학년 전체를 가르치니 누구도 소외되지 않잖아요. 환경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춘 춤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부터다. 6학년 아이들의 졸업 영상을 ‘의미 있게’ 담아주고 싶어서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10월에 업로드한 ‘6학년 담임이 힙합을 좋아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은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빗자루를 들고 교실을 청소하던 교사가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 댄스 가수를 방불케 하는 춤 실력을 선보이는 것이 여간 신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회수가 무려 777만 회를 기록한 이 영상을 비롯해 ‘현길쌤의 두둠치’에는 조회수 100만이 넘는 춤 영상이 꽤 많다. 보고 있으면 절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돌아 한 번만 보게 되지 않는 까닭이다.





“교사가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해 너그럽지 않은 시선이 있을 줄 알았어요. 각오하고 시작했는데 칭찬 댓글을 과분하게 달아주셔서 아주 큰 힘이 돼요. 간혹 ‘악플’을 발견하면 그걸 수업에 활용해요. 그 댓글을 도덕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해주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수용할 줄 알되 자기만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를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도 해요. 살아 있는 교육자료예요.”

춤이 학교폭력 예방으로 이어지는 이유

동영상 플랫폼에 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뒤로 그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목격해 왔다. ‘댄스 챌린지’는 순서대로 동작을 따라 하는 일이다. 새로운 안무에 도전하고 성공할 때마다 아이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을 꾸준히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내심과 성취감이 길러진다. 인내로 쌓은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이니 자존감이 높아지고, 친구들과 ‘합’을 맞춰본 경험이 늘어나니 배려심이 커진다. 경쟁 대신 협동을 가르치는 일. 그것이 학교폭력

을 예방하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따뜻한 반응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이끈 요인 중 하나다.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동영상 보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온다는 것. 그 사실이 아이들의 정서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저도 달라졌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괜찮아’더라고요. 서로 부대끼며 춤을 추다 보면 서로 발도 밟고 어깨를 부딪치기도 해요. 그때마다 괜찮다고 말해줘요. 동작이 맘대로 되지 않아 예민해진 아이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요. 교과로 가르칠 때보다 몸으로 가르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가 아이들과 춤을 같이 추면서 확신하게 된 것 중 하나는 ‘교사의 행복이 곧 학생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니 그의 얼굴은 늘 햇살처럼 환하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게 된다. 그게 출발점이다. 같이 즐기며 웃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게 된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난다. 선순환이 그렇게 가능해진다.

행복한 교사가 ‘좋은 교사’다

“다른 교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함께하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아이들에 맞춰서 활동을 선택하다보면 교사가 즐기면서 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사도 아이들도 활동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것이 ‘좋은 교사’로 가는 길이라 믿어요.”


그에게는 춤을 함께 추는 교사 동료들이 있다. 팀 이름이 ‘BJS(부장소년단)’다. 교대 재학 시절 함께 댄스 동아리를 했고, 지금은 각 학교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20년 지기들이다. 지난 5월 말 그는 BJS 멤버들과 아주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별캠프’(경기도교육청 주관)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댄스 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취지가 좋아 뿌듯했고, 호흡이 잘 맞아 흐뭇했다.

“춤도 같이 추고 교사로서의 고민도 나눕니다. 각종 정보도 공유하고요. 일과 놀이를 함께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벗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스승의 날엔 경기도 교사 댄스 동아리 D.O.T와 함께 동료 교사들을 응원하는 댄스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교육부의 의뢰로 진행된 일인데 H.O.T의 ‘빛’을 선곡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가사 첫 마디부터 새삼 몽클했다. 소중한 사람들을 춤으로 응원하는 행복. 그가 요즘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2007년 오산고현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꿈은 ‘친구 같은 교사’가 되는 거였는데, 돌아보면 대책 없이 놀아주기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놀아주되 수업이 우선이에요. 놀이와 교육을 접목할 줄 알죠.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비로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첫 꿈을 이룬 그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꾀다. 동료 교사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다. 춤추듯 꿈꾸고, 꿈꾸듯 춤춘다. 삶이 그 자체로 ‘흥’이다. ㊦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쉽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아이도, 부모도 만족하는 성공적인 방학 보내기

방학, 아이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보낼 마음에 들뜨는 시간이지만,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가 느슨해져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 고민하거나 혹은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할지 막막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대부분은 학원과 과외, 개인 공부로 시간표를 가득 채우려는 욕심도 부리곤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이들과 마찰도 생기기 마련이다. 공부와 휴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보면 어느새 다가오는 방학. 과연 우리 아이 방학생활표는 어떻게 짜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다.



글 박재원 부모교육 전문가

🕒 무한경쟁 시대 속 '방학'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영국의 한 사회학자는 한국 부모들은 냉전 시대 군비경쟁 같은 사교육 무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고 진단했다.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혹시 아이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주변 시선과 다른 집 애들은 치고 나가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불기둥처럼 치밀어 오르는 '낙오 공포'를 감당해야 한다. 방학을 핑계로 잠시 편하자고 아이를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결국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지,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뻑뻑한 방학 시간표를 짜고 나서야 겨우 안심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방학 시간표 정도는 대부분 구상을 마치고 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보 수집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대세를 장악한 방학 시간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치동에서 방학 컨설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이야기 해본다.

🕒 주도자에 따라 달라지는 방학 시간표

우선 부모 주도로 학교생활의 공백을 사교육으로 채우는 경우다. 만약 필자에게 방학 시간표를 짜라고 하면 **한 과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쓸 것이다. 이번 방학은 국어, 다음은 수학, 그다음은 영어처럼 공부해야 할 과목을 하나만 정하고 대신 가급적 여유를 주는 방법이다. 여러 과목으로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좋으며, 공부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도 학기 중에 기대할 수 있는 방학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위권 학생인 경우 방학 동안 한 과목에만 집중하면 방학이 공부해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공부 허무감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음은 부모와 아이가 합의해 방학 생활을 설계하는 경우다. **교과 공부보다는 평소 자신의 관심사에 몰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곤충에 대한 관심을 깊이 파고들어 명문대 진학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전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사례를 보면 아이가 곤충 관련 영문 잡지를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또 곤충 관련 통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말 하고 싶은 곤충 공부

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과 공부에도 전이 효과가 나타나 억지로 교과 공부에 매달린 경우보다 탁월한 학습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교과목보다 자신의 평소 관심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먼저 방학 내내 공부와 답을 쌓고 살아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말해준다. 중위권 학생의 상당수와 대부분 하위권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미 차곡차곡 쌓인 공부 스트레스는 아이들을 스트레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자극을 갈망하는 상태로 몰아간다. 자신들도 공부 같은 권장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문제 행동에 매달리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태에서 빠져나올 기회로 방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방학 내내 밤낮으로 게임만 하면 중독이 걱정되지만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본 경험의 기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현실이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 핵심은 '자발적 실천 의지'

이제부터 방학 계획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비록 방학 시간표대로 생활하지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와 온갖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은 다르다. 전자라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라면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부모는 지시·통제·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아이는 더욱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잦은 충돌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진이 빠진 부모는 하루빨리 개학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처지가 되기 십상이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흔히 아이 탓을 한다. 아이에게 화살을 돌리면 부모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지만 정말 잠시일 뿐 이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이 탓을 잠시 미루고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자기 결정성 이론의 도움을 받자. 아이의 자발적 실천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방학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적고 나서 해야 할 일을 기록하게 한다. 해야 할 일은 집중력을 발휘해 필요 시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궁리한다. 방학이라고 어영부영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함께 찾아본다. 또 시간에 쫓겨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모 마음 즉,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굳이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아이가 느껴야 한다. 부모의 욕심이 느껴지는 계획을 세우게 한 뒤 얼마나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는 식의 태도는 처음부터 아이의 실천 의지를 꺾을 뿐이다. 대치동에서 컨설팅할 때의 경험인데 아이가 방학 시간표를 보는 순간의 느낌을 물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계지?" 계획은 충실하지만 실천은 빈약할 것이고, 결국 실패로 끝날 방학 시간표임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아이의 반응이다. "이렇게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다소 부실하지만 실천은 충실할 것이고, 결국 방학 생활이 성공적일 것임을 예측하는 아이의 반응이다.

🕒 부모 욕심은 down, 아이 의지는 up

늘 깨닫지만 부모의 욕심과 아이의 실천 의지의 총합은 비슷한 것 같다. 부모가 욕심을 거둬들인 만큼 생긴 빈자리를 아이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채우는 듯하다. 당연히 부모의 욕심이 강할수록 아이의 실천 의지는 위축된다. 아이들의 부족한 실천 의지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별책을 정할 때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임 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지금 게임을 많이 하면 앞으로 게임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화를 내고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용돈을 줄인다거나 자유 시간을 제한하는 것처럼 게임과 관련이 없는 별책도 효과가 없다. 게임 조금 더 하려다가 오히려 게임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별책이 논리적이어야 아이들이 부족한 자제력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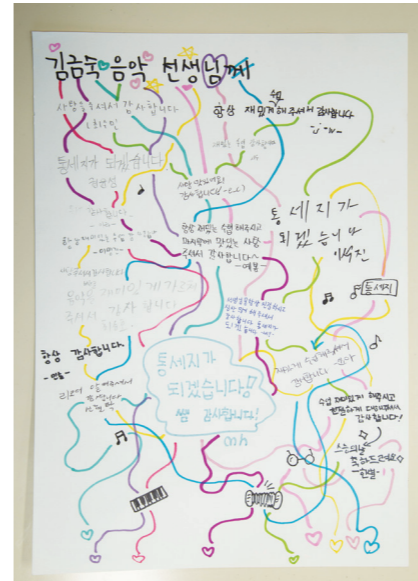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크게 교란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자연에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치유할 것이다. 당장 급한 불도 꺼야 하지만 아이의 삶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 이번 방학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⑧

두 번째 직업은 '학교 엄마', '늘봄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며 '늘~봄 같은 황혼'

늘봄학교 교사 김금숙 회원

집을 나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시 엄마를 만난다. 그 엄마는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학교 엄마' 김금숙 회원이다. 늘봄학교가 시작되면서 김금숙 회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퇴직 후 늘봄학교에서 생애 두 번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금숙 회원을 소개한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정년 후 찾아온 세 번째 입학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김금숙 회원은 교사로 학교에 돌아왔다. 2022년 교사로도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는 기간제 교사로 또 학교에 돌아왔다. 게다가 이번에는 누구보다 일찍 학교를 나와 가장 늦게까지 이곳에 머문다.

김금숙 회원은 1981년 11월 경주 모량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은 후 11개 학교를 거쳐 41년 만인 2022년 2월 칠곡 북삼초등학교에서 수석 교사로 정년퇴직을 했다. 그리고 퇴직하자마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간제 교사로 다시 학교에 취업했다. "여덟 살 때 입학해 만 62세까지 학교를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도 김금숙 회원은 여전히 학교가 좋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어느 학교에나 일찌감치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아이는 수업 중에 매번 판짓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교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저는 그런 아이와 교사를 위해 학교에 다시 왔습니다. 현직 교사로 있을 때보다 지금은 더 여유롭게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 좋아요. 또 다행히 문제 행동을 보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중학교 가서도 잘하고 있어요'라며 연락을 해와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다 보니 학교를 벗어날 수 없나 봐요."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심신이 지쳐 휴식이 필요한 교사, 김금숙 회원은 그들의 부름에 응답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른 일로 적성을 살리거나 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느냐"며 만류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학생'이었다. 게다가 김금숙 회원에게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되레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학교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 보면, 모두가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였다. 변화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해 김금숙 회원은 아이들을 더 오래오래 지켜봤다.

늘봄학교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다

올해부터 김금숙 회원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선정되면서 구미 남계초등학교가 늘봄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늘봄학교 교사로서 김금숙 회원은 아침 일찍부터 남계초등학교로 출근해 아이들을 맞는다. 아침 식사인 ‘햇님식’이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고, 간밤의 안부도 묻는다. 정규수업과 오후돌봄이 끝나면 다시 저녁돌봄을 연다. 전교생 64명 중 햇님식을 먹는 학생은 27명, 저녁돌봄에 오는 학생은 17명이다. 아침·저녁돌봄 교육을 돕는 봉사자도 따로 있다. 맞벌이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정규수업과 행정 업무로 바쁜 교사들을 대신해 김금숙 회원과 봉사자들은 교사이자 부모로서 아이들을 품는다.

늘봄학교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딩, 드론, 체육, 드럼, 놀이 한자 등 과학·창의 교육부터 신체 놀이까지, 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김금숙 회원이 특히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내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다.

“돌봄교실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이 모여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예외로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의 형제자매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년이라도 함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5학년 학생까지 모여 있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괴롭히진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이는 작은아이를 돌봐주며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아이는 큰아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더 마음껏 어울려 놀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도 얻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배워야 할 것들이죠. 저는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제게는 지금이 작은 힘이나마 아이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고요.” 김금숙 회원이 말하듯 아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서로 어울리며 함께 자란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 놀고 배우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아이도 없다.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란다.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다

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해 6학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듯, 김금숙 회원은 교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학년이 있다고 믿는다. 교사 1학년 시절,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책임감’이었다.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 ‘학교에 왔으면 무엇이든 배워가게 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으로 학생을 대하면서 정작 그 속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결혼해 자식을 낳아 기르고 나서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랑과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서로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교사 2학년이 되었다.

“교사가 되고 처음 10년 동안은 아이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 줬어요. 어쩌면 그 죄스러움을 갚기 위해 지금껏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과 눈빛, 행동 모든 것을 따뜻하게 대했더니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야단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나은 모습으로요. 그때부터 저도 교사라는 직업에 더욱 자부심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다시, 제대로 주기 위해 김금숙 회원은 상담을 공부했다. 대구대학교 상담학과에서 박사학위도 받았다. 김금숙 회원은 이 과정에 대해 “내 생애 가장 잘한 일 세 가지는 아이를 낳은 것, 교사가 된 것, 상담을 공부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상담은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겪어보니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환경이 있고, 문제 행동이 있을 뿐이죠.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일도 거의 없어요. 해결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주진 못하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히 말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관심을 두고 사랑해 주는 ‘학교 엄마’예요.”

생애 네 번 농사를 짓겠다는 꿈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두고 ‘이모작’이라고 한다. 김금숙 회원은 농사를 두 번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한다. 두 번째 농사는 늘봄학교에서 짓고, 세 번째 농사는 상담사로서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하고, 네 번째 농사는 노인 상담을 할 계획이다.

퇴직 교사들과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퇴직한 수석교사들과 힘을 합쳐 연중 보육·교육·상담이 가능한 아이돌봄터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가장 눈여겨보는 장소는 폐교. 지

역에 있는 폐교를 개조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것이다. 김금숙 회원은 “주변에 함께하고 싶다면 나서는 퇴직 교사는 많은데 정작 마땅한 장소가 없는 데다 지원도 부족하다”라며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교사가 많다. 이들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다행히 김금숙 회원은 늘봄학교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눌 기회를 얻었다. 인생의 두 번째 농사를 지으며, 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앞으로도 몇 번이고 김금숙 회원이 새로운 농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7월의 무더위 잇을 두메산골 시원하게 즐기는 액티비티 천국 경상북도 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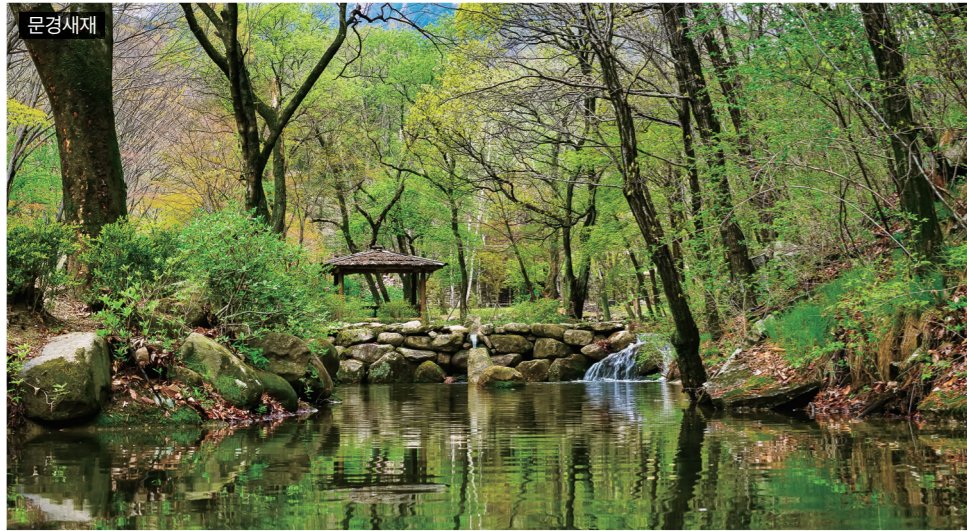
한때 탄광 지역이었던 두메산골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은 누가 뭐래도 경상도와 충청도의 도립공원인 문경새재다. 그러나 문경시가 무더위를 물리치는 레저와 체험의 고장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액티브한 고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성하(盛夏)의 푸르른 녹음을 가로지르는 불정자 연휴양림 짙라인, 영강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절경을 감상하는 철로자전거와 래프팅까지. 7월의 무더위를 쫓으러 문경으로 떠난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문경시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문경새재 2관문 조곡관



문경새재, 백두대간 너머 한양 가던 길



문경새재는 조선 태종 때인 1414년에 개척한 새로운 길로 영남(경상도)과 지금의 경기 및 충청 일대인 기호 지방을 이어주는 관문이었다. 새재가 뚫리기 전에 영남과 충청을 연결하던 험한 길을 대신하는 새로 난 고개라는 뜻에서 ‘새재’라고 이름 지었으나 이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령(鳥嶺)이라 잘못 표기되었다. 고개가 높고 험해서 나는 새도 쉬어간다 해 새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와전된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 문경새재에는 첫 번째 관문 주흘관, 제2관문 조곡관, 그리고 제3관문 조령관까지 모두 3개의 관문과 원(院) 터 등이 요소마다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는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말끔히 복원돼 옛길을 찾는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새재는 백두대간 조령산의 산마루를 넘는 고개이기 때문에 옛길을 걸으려는 사람들 말고도 주흘산, 조령산을 오르는 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산행 코

스이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 관광객은 제1관문과 제3관문 사이를 잇는 산책 코스(6.5km)를 선택한다. 아주 잘 정비돼 있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가족은 마당바위 혹은 제2관문까지만 다녀오고는 한다. 왕복 3~6km 울창한 숲 사이로 난 평탄한 길을 따라 가면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여름 한낮에 산길을 걷는다는 사실 자체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문경새재에서는 무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옛길 바로 옆으로는 맑고 투명한 계수가 흐르는 새재 계곡이 펼쳐진다. 울창한 숲 사이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걷노라면 마당바위, 용추 등 등골이 시원해지는 풍경이 동화원휴게소 부근까지 줄곧 이어진다. 또 계곡으로 스며드는 지류가 많아 갈수기에도 늘 수량이 많다. 조선 시대 옛길 따라 펼쳐졌던 선조들의 문화와 풍물이 궁금하다면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에 자리 잡은 옛길박물관에 들러보길 권한다.



짚라인 문경

짚라인 타고 울창한 숲 사이를 날아볼까



문경시 불정동의 해발 478m 수정봉 자락에 안겨 있는 불정자연휴양림에는 짚라인이라는 이색 레저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짚라인이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튼튼한 강철 와이어로 연결한 뒤 그 위에 작은 쇠바퀴가 2개 달린 트롤리를 얹은 장치를 타고 이동하는 레저 시설로, 바람을 가르며 공중을 날 듯이 질주하기 때문에 체감 속도는 두세 배 이상 빠르게 느껴진다. 와이어에 매달려 날 듯이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마치 아이언맨이라도 된 것처럼 숲을 누비며 날아다니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일행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점이 짚라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짚라인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짚라인 문경’은 총 9개 코스로 길이는 가장 짧은 구간이 82m, 가장 긴 구간이 360m이

며, 1코스에서 9코스를 차례로 이동할수록 점차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때 1~3코스는 짚라인 탑승 방법을 몸으로 익히는 연습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문객들은 가이드로부터 10분 정도만 탑승 방법 및 주의 사항을 들은 뒤 탑승할 수 있다. 실제 짚라인 탑승장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도 쉽게 적응하고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반바지 차림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으며, 머리가 긴 사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깔끔하게 묶는 것이 좋다.

지난 1997년에 문을 연 불정자연휴양림은 재약산 자락의 수정봉과 조봉 사이에 위치한다. 휴양림 진입로를 따라 벗어나 나무가 도열해 있으며, 울창한 숲속에 산책로, 등산로가 개설돼 있어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또한, 11동의 통나무집과 1동의 황토집 그리고 카라반 14동까지 모두 26동의 숙박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다. 그밖에 캠핑이 가능한 야영장을 비롯해 원두막, 전망대, 물놀이장, 야생화단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사실 알고 보면 자연휴양림은 이 여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슬기로운 피서 장소다. 산의 경사면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활엽수들이 천연의 그늘막을 만들어 놓아 시원하게 산림욕을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탁족을 즐기거나 튜브를 타고 동동 떠다니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영강 변 절경을 만끽하는 철로자전거와 래프팅



요즘은 폐쇄된 철로를 활용한 레저 시설인 레일바이크가 대중화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레일바이크의 원조는 문경 철로자전거다. 철로자전거가 출발하는 곳은 구랑리역과 진남역 두 곳으로 1코스(구랑리역~떡뱅이, 왕복 6.6km)와 2코스(진남역~구랑리역, 왕복 7.2km) 그리고 가은역에서 운행하는 꼬마 열차(400m 구간 순환)까지 3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꼬마 열차가 있는 가은역은 옛 역사 건물을 로컬푸드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경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밀크티와 디저트를 판매한다.

1~2코스는 폐광 지역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구간으로 탑승자가 직접 페달을 굴러 시원한 터널을 통과하고 강물 위로 이어지는 아찔한 다리를 이동하며 힐링하는 액티비티다. 특히 진남역 철로자전거는 최근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레일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 대에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한 레일바이크는 가족 또는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점이 돋보인다.

더위를 잊는 특효약으로는 역시 물이 최고다. 속리산에서 발원해 문경을 가로지른 뒤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영강은 깎아지른 절벽이 강물 위에 반영되는 수려한 비경이

영강 래프팅



줄을 잇는 문경의 젓줄이다. 영강은 수량이 풍부한 편이어서 수십 년 전부터 여름철 래프팅 체험 포인트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래프팅을 통해 경북팔경 중 제1경에 해당하는 진남교반의 수려한 절경을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래프팅 코스는 구랑리와 봉생리 코스 2개로, 1코스는 마성면 구랑리에서 출발해 진남역 앞까지 노를 저어 이동한다. 갈수기로 강물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마성면 신현리, 봉생리에서 출발해 된섬보까지 약 3km 구간의 코스로 대체된다. 잔잔한 강물 위로 천천히 노를 저어가며 흘러가노라면 계곡 바깥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놀라운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㉞

구랑리역 철로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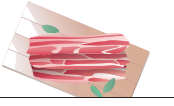


문경으로 떠나는 식도락 여행

청량한 두메산골에서 맛보는 영양만점 먹거리



거석정 먹은 **약돌한우와 약돌돼지**



문경의 대표 먹거리로는 단연 약돌한우와 약돌돼지를 꼽을 수 있다. 약돌한우란 이름 그대로 문경에서 나는 '거석'이라는 약돌을 곱게 갈아 사료와 섞어 먹인 한우를 말한다. 우량 송아지에게 가은읍 수에리에서 생산되는 특수 광물질인 거석 혼합 사료를 먹여 기르면 육질이 좋아져 더욱 맛있어진다. 약돌한우와 마찬가지로 사료와 함께 거석을 먹인 약돌돼지는 필수아미노산 함유량이 높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다. 문경을 진안리의 문경약돌한우타운을 비롯해 문경시 곳곳에 약돌한우와 약돌돼지를 취급하는 전문 식당이 여럿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문경약돌한우타운(1588-9075)은 주차가 편리하고 매장이 아주 넓고 쾌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안성맞춤이다.

광부의 애환 깃든 **족살찌개**



문경 토박이에게 족살찌개는 탄광촌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음식이다. 1970~1980년대 문경은 삼척, 태백, 정선 등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탄광 지대였는데, 당시 이 지역 광부들은 갱도 속 생활을 족살찌개와 함께 극복했기 때문. 족살은 돼지고기의 앞다릿살을 뜻하는 말로 당시 돼지고기가 몸속의 탄가루를 씻어낸다는 소문 때문에 광부들이 거의 매일 즐겨 먹는 단골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막장을 오가는 고단한 삶이라는 스토리텔링 덕분일까? 문경 사람들은 여전히 족살찌개를 즐겨 먹는다.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있는 족살찌개 전문점 황토성에서 족살찌개를 맛볼 수 있다. 황토성(054-571-7777)은 1971년 창업한 이래로 2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는 노포 맛집. 양은 도시락에 담아주는 '추억의 광부도시락'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니 족살찌개와 함께 맛보자.



빨간 맛! 문경 특산물 총총 넣은 오미자빵



오미자는 문경이 자랑하는 대표 특산물이다. 바로 이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청, 당절임, 음료, 빵 등이 문경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미자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도 앞 다투어 문경 오미자를 납품받아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오미자빵은 커피나 차(茶)에 곁들여 먹기 좋은 디저트로 제격이다. 부드러운 반죽에 단팥 고명을 넣은 뒤 오븐에 구워낸 빵 위에 오미자잼을 얹어 만든 오미자빵은 고소하고 달콤한데다 식감도 좋아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문경약돌한우타운 인근에 자리한 문경오미자테마공원에서 오미자청 담그기와 오미보리빵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3층 카페에서 오미자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특하고 치면 **욱!** 내 안에 또 다른 나 '분노'

가득이나 날도 더워 짜증이 나는데 사소한 일조차 쉽게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 건들면 '뿅' 소리를 지를 것만 같은 날이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욱해버린다면, 나의 본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과 나에게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발칵 화가 나거나, 늘 초조함을 느끼거나 실패할까 두렵거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많다면,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주)다인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채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는 떼를 쓰고 어지럽혀진 방을 보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부터 나오곤 합니다. 또 어느 날은 회사에서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저녁 밥상 앞 엄마의 가벼운 말이 거슬러 엄마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잠든 아이를 보며 내일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엄마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감정

까지 해치고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 자책, 미안함만이 남아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죄책감과 분노 사이, 그 어디쯤 서 있는 듯합니다. 분노는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려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날씨가 덥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 거슬러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화를 내면서도 왜 화가 나는지, 어떻게 분노감을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 차별을 경험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실망, 상처를 받을 때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책임, 과도한 압박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처럼 분노는 다양한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스스로 원치 않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가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며 하려는 말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하고자 했던 말들을 더 효과적이고 차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전달법(I-Message)'으로 전달해 보세요.



'나 전달법'은 상대가 아닌 '나'를 주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화법으로,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도 나의 감정 상태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편안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지 말랬지?" 대신 주어를 '나'로 바꾸어서, "엄마(나)는 우리 아들이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와 같이 바꿔 말해보세요. 또는 "너는 왜 맨날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대신 "나는 네가 이 일을 마무리까지 잘 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 같아."와 같이 표현해보세요. '나 전달법'은 상대가 공격당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나의 감정과 기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짜증과 화가 평소보다 더 나기도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와 컨디션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주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가벼운 산책 등 심신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활동

들을 통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심리전문가와 함께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제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며, 어떤 상황일 때 통제가 어려운지, 그리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한, 최근 짜증이 많아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커지는 등 자신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올바르게 표현하여 나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멈춘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 「The-K 마음심」 이용 안내 ♥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1 상담(대면·전화·화상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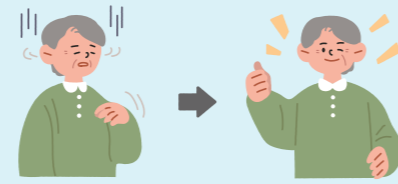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심 홈페이지 ▲



노년을 위협하는 병, 인지장애 긍정의 힘으로 이겨낸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도 노화하며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그래도 나이 드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낮았다. 인지장애를 막아주는 긍정의 힘 기르는 법을 소개한다.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 시간, 장소 자주 헛갈린다면, 경도인지장애 의심

나이가 들면 노화로 뇌가 조금씩 위축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20세 때보다 뇌 부피가 10%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수상돌기가 줄어들고,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 연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뇌 위축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 뇌 부피가 줄더라도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 치매로 진행하기 전, 우리 뇌는 관리가 절실하다는 마지막 신호를 보낸다. 경도인지장애 시기로,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중간 단계인 이때 잘 관리하면 치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면 같은 연령대보다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만, 치매와 달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5~15배 높다. 경도인지장애의 대표 증상은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헛갈리고, 자주 사용하던 물건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과거보다 이해력, 표현력이 떨어졌을 때도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행복하면 인지기능 저하 막을 수 있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뇌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소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 위험이 37% 높다는 미국 예모리대학교 의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학교 연구팀도 부정적 생각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뇌에서 치매 유발 단백질이 다량 관찰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앞서 소개한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처럼 인지 기능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 공동 연구팀이 4,457쌍의 부부를 최대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긍정적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교류 사회 활동 참여는 그 자체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 연구에서 친목 모임, 동호회, 동창회 등 모임 활동을 자주,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 증상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모임에서 얻는 정서적,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감정을 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안부를 자주 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교류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은 더 낮아진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동호회 등이 특히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로운 인지 기능을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23% 낮아진다는 중국 베이징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다.



주기적 한숨 호흡 부정적 감정을 떨치지 못할 땐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기적인 한숨 호흡’을 해보자. 주기적 한숨 호흡이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완전히 내쉬기 전 짧게 30번 정도 내쉬는 호흡법을 말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팀이 여러 호흡법을 108명에게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하도록 한 결과, 주기적 한숨 호흡이 가장 효과

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완화하고 불안감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1~2분간 자신의 신체 느낌에 집중하면 된다.



운동 부정적 생각을 떨치면서 그 자체로 뇌 노화까지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일주일에 150분 정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분의 1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른 사람과 여럿이 함께 하는 운동이면 더 좋다. 사회적 교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쓰쿠바대학교 연구팀이 4,328명의 노인을 4년간 추적한 결과 혼자 운동하는 그룹은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15% 감소했지만 단체로 운동하는 그룹은 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즐기기 음악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우울,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줄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 덕분인지 음악을 즐기면 인지기능도 향상된다. 피츠버그대학교 연구팀이 음악 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면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인지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합동 연구팀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4개월간 한 주에 두 번 한 시간짜리 라틴댄스 수업을 듣게 했더니 같은 시간 건강 상식을 배운 집단보다 인지기능 검사 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작업 기억력 점수가 높았다. 비슷한 국내 연구에서도 춤을 배운 노년층 여성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좌뇌와 우뇌 협응이 향상돼 인지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긍정의 힘 회복 노력과 함께 병원 진단도 받아야

한편,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면 긍정적 힘을 기르려는 노력과 함께 제때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울증, 혈관성치매 등 인지기능이 떨어진 원인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CT, MRI, PET),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다. ㉔

우리 집 식탁에서 떠나는 여름 여행 세계의 여름 보양식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맞는 첫 여름. 그동안 기다렸던 해외로 떠나고 싶지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맘처럼 훌훌 휴가지로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이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우리 집 식탁에 세계 각국의 여름 요리를 초대해 보세요. 색다른 보양식으로 달아난 입맛도 잡고, 내년에는 꼭 맛들어진 해외여행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보아요.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여름이 되면 한국인은 자연스레 달력에서 세 번의 복날을 확인합니다. 날씨가 가까워질수록 삼계탕을 먹을지, 치킨을 먹을지 즐거운 고민도 빼놓지 않죠. 하지만 닭 요리를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나라는 생각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닭을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 「동의보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국가에는 기후와 환경에 맞춰 발전한 특색 있는 여름 보양식이 있는데요, 그 속에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스페인 가스파초 가스파초는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 영양을 잔뜩 품은 토마토를 가득 넣은 차가운 수프입니다. 스페인 국민 요리인 이 메뉴는 우리의 김치처럼 집집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가스파초는 아라비아어로 '젖은 빵'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8세기 이슬람이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할 당시 전해진 요리가 긴 시간이 지나 스페인 요리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이 가득해 올리브유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며, 열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요리인 만큼 비타민 등이 거의 파괴되지 않아 한층 풍부한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 재료는 토마토지만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 무엇이든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장어덮밥 우리에게 복날이 있다면, 일본에는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토왕의 소의 날'로, 이날 장어를 먹게 된 것은 더운 여름에 장어 장수가 '우시노히에는 우나기(장어)를 먹어야 더위를 안 탄다'는 소문을 내면서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 유행이 풍습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가 들어가는 우동이나 우메보시(매실절임)도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일본식 장어덮밥은 장어와 밥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스타일의 간사이식 '우나쥬'와 둥그런 술에 바싹 익힌 장어를 얹은 뒤 김, 쪽파, 차조기 등을 더해 먹는 나고야식 '히쓰마부시'로 나뉩니다. 특히 히쓰마부시는 어느 정도 먹은 뒤 장어 육수를 부어 '오차즈케' 스타일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바비큐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아 음식 문화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특이점이 없는 편이지만, 바비큐만은 미국의 대표 요리로 꼽힙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더운 여름이 되면 뒷마당에 그릴을 설치한 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각종 채소와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데 익숙합니다. 바비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테이크를 포함한 그릴 요리와 오랜 시간 훈연해 굵는 진짜 바비큐 요리를 통칭해 부르는 것입니다. 바비큐 중에서도 돼지 어깨살을 오랜 시간 구워 찢어 먹는 '풀드 포크(pulled pork)'의 인기가 높는데요, 보기와 달리 장시간 익혀 아주 부드러우며, 주로 특제 소스를 버무려 각종 채소, 빵과 함께 먹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풀드 포크 샌드위치' 메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온 것입니다. ㉠



참외 가스파초

스페인의 국민 요리 가스파초와 한국 고유 과일 참외가 만났습니다. 여름의 달콤함과 싱그러움을 가득 담은 시원한 수프로 지친 몸을 깨워보세요.



- 재료 참외 200g, 청포도 40g, 양파 1/4개, 물 100ml, 화이트와인 비네거 또는 식초 1작은술, 유자청 1/2작은술, 소금 약간
- 부재료 참외, 청포도, 적포도 등 과육 약간, 바질 약간, 핫소스 약간, 프로슈토(생략 가능)

TIP 프로슈토 대신 햄을 가늘게 썰어 얹어도 좋아요.

* 만드는 방법



① 믹서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곱게 간다.



② ①을 체에 거른 뒤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한다

③ 토핑용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샐러드 볼에 담은 뒤 위에 ②를 붓고 핫소스를 살짝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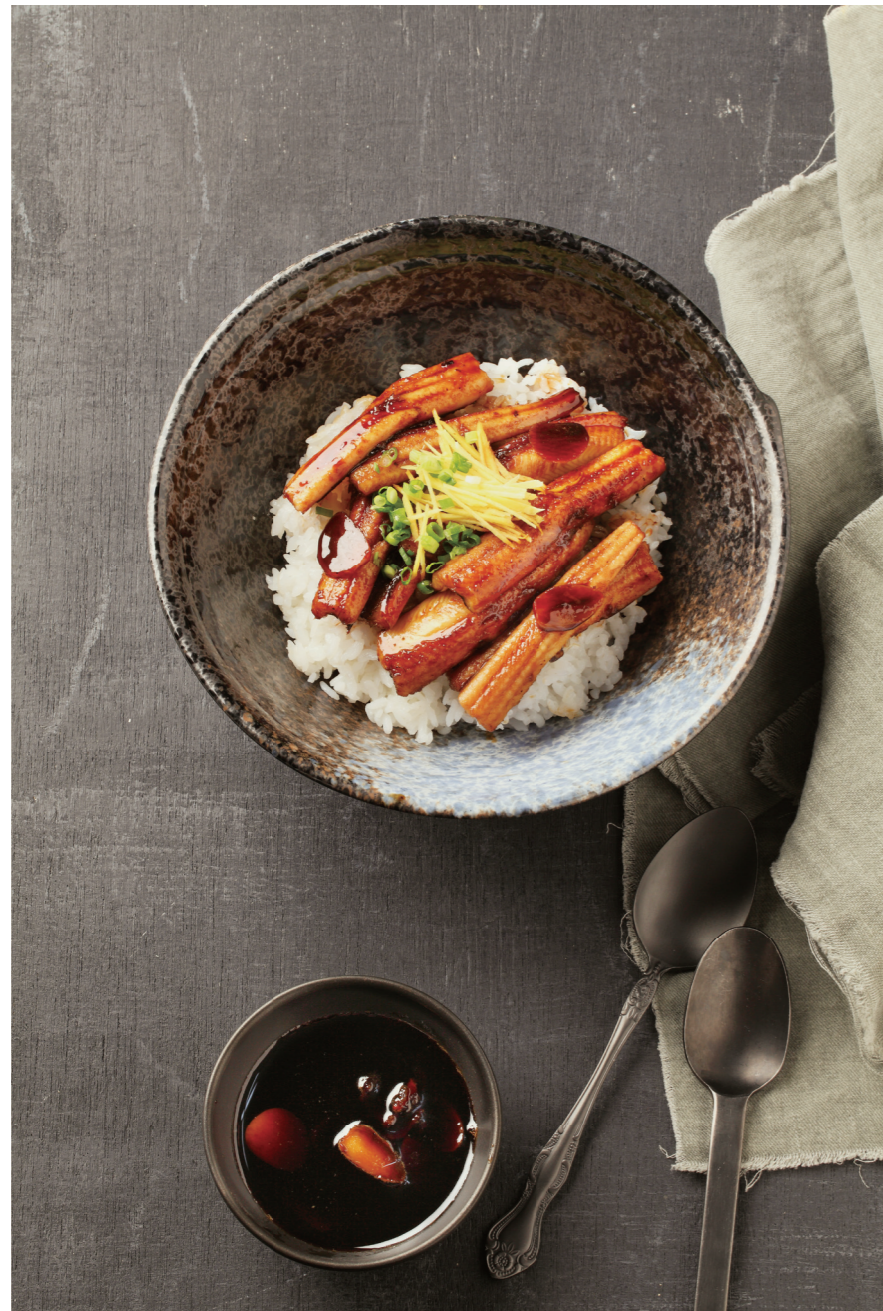
④ 프로슈토와 바질을 얹어 완성한다.





장어덮밥

한국에서도 기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장어. 울여름은 맛깔난 데리야키 소스를 겹겹이 발라 밥 위에 얹어 먹어보세요.



- 재료 장어 1마리, 밥 1공기, 생강 1쪽(채썰기), 쪽파 2줄기, 식용유 적당량
- 부재료 청주 2큰술, 후추 약간(밀간용), 설탕 3큰술, 맛술 2큰술, 간장 4큰술, 생강 1쪽(편 썰기), 마늘 4쪽, 가쓰오부시 육수 1컵, 후추 약간

TIP 초벌구이한 장어에 양념장을 여러 번 덧바르며 석쇠에 구워도 좋아요.

* 만드는 방법

- 1 손질한 장어는 반을 잘라 청주와 후추에 10분간 재운다.
- 2 생강은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담가 두고, 쪽파는 송송 썬다.



- 3 끓는 물에 가쓰오부시를 넣고 바로 체에 건져 가쓰오부시 육수를 만든다.
- 4 장어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식용유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운 다음 큼직하게 자른다.
- 5 팬에 양념장 재료를 넣고 끓으면 약불로 줄여 반으로 줄어든다.



- 6 양념장 팬에 장어를 넣고 양념장이 배어들도록 조리한다.



- 7 밥 위에 구운 장어를 올린 후 생강과 쪽파를 얹어 낸다.



포크 바비큐 샌드위치

새콤달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샌드위치를 한입 베어 물면 미국 남부의 너른 초원이 떠오를 거예요.



- 재료 돼지고기 등심 300g, 청주 1/2컵, 다진 생강 1작은술, 양파 1개, 대파 흰 부분 1대, 간장 1큰술, 인스턴트커피 1큰술, 시판 바비큐 소스, 모닝빵 4개, 버터 1작은술, 후추 약간
- 콜슬로 재료 양배추 0.25개(1/4통), 마요네즈 2큰술, 흑설탕 1작은술, 레몬즙 1큰술

TIP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가 부드럽게 찢어지도록 푹 익혀야 해요.

* 만드는 방법



- 1 돼지고기는 청주와 다진 생강을 골고루 묻혀 밀간을 한다.
- 2 냄비에 고기를 넣은 뒤 잠길 만큼 물을 붓고 간장, 커피, 양파, 대파와 함께 1시간가량 끓인다.



- 3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썬 뒤 나머지 콜슬로 재료를 넣고 버무려 놓는다.



- 4 ②의 고기를 건져 포크로 찢어 바비큐 소스에 버무린 다음 달군 팬에 살짝 볶는다.



- 5 모닝빵은 반으로 가른 다음 버터를 두른 팬에 앞뒤로 살짝 굽는다.

- 6 ④에 고기와 콜슬로를 넣어 완성한다.

일상에서 하나씩 시작하는 환경보호 활동 용인대학교 환경동아리 지구인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여름휴가용품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북극곰이 터전을 잃고 해매거나 태평양의 어느 섬이 홍수를 겪는 모습 등이 떠오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재난 속에서 나라는 개인의 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심드렁한 마음이 든다. 그런 이들에게 용인대학교 환경 동아리 '지구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구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들이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 등산로, 바닷가 등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개개인은 물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활동과 이를 통해 달라진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리고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여름휴가지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을 함께 만들어보자.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 사진 이용기



사진 왼쪽부터 지구인 1기 김현승, 이연재 씨



언더더씨 활동 단체사진

직접 만든 동아리로 시작한 환경보호 활동

용인대학교 환경 동아리 '지구인'은 설립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용인대학교는 최근까지 환경 동아리가 없었다. 초대 회장 이자 동아리를 설립한 졸업생 이연재 씨는 '대학생 87km 비치대장정'이라는 해양 정화 활동을 경험하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러고는 교내 환경 동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직접 나서자"는 생각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며 동아리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동아리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였다. 정식 동아리 설립 전에는 환경부의 그린캠퍼스 활동을 통해 교내에서 환경보호를 환기하는 피켓 홍보도 진행했다. 정식 동아리가 된 2021년에는 '경기도 대학생 공익 활동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 당선됐다. 이때 시행한 '산줍일기'는 경기도의 대표 산인 석성산, 조비산, 광고산을 방문해

산 이곳저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었다. 이들은 5개월 동안 해발 967m인 산을 올라 16kg의 쓰레기를 주우며 활동의 결실을 거뒀다. 2022년에는 바다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산 방아머리해수욕장, 가평 가평천 등을 찾아 쓰레기를 주우며 경기도의 환경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4월에는 'PD 쇼케이스 사업'에 선정돼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전라남도 부안에서 무안으로 이어지는 이름 없는 작은 해변을 방문해 '언더더씨(under the sea)'라는 이름으로 플로깅 활동을 했다. 관광객이 적은 해변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악순환을 겪는다. 회원들은 이곳을 방문해 4일 동안 88kg의 쓰레기 줍기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 활동에는 올해 초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연재, 정승현 씨도 참여했다. 주민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회원들은 덕분에 한층 보람을 느끼는 행사가 됐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실천

졸업 후에도 지구인과의 인연을 놓지 않고 있는 이연재, 정승현 씨 모두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다 우연한 기회로 환경운동에 참여했다. 모든 활동이 신선하기만 했다. 그중에서도 두 사람이 입을 모아 강조한 활동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이다. 텀블러 사용하기, 불필요한 메일 지우기, 외출 시 콘센트 뽑기 등 사소한 생활 습관이지만 다수가 실천하면 큰 힘이 되는 것들이다. 정승현 씨는 "이런 활동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올해 3월에 주최한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지키는 9가지 방법' 챌린지를 언급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힘들었을 텐데 챌린지 형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인증하며 도전하다 보니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며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하는 자신만의 비법도 전했다.

그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사실 이들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교내 출입조차 쉽지 않아 외부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만큼 재학생 회원들은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플로깅, 계도 활동 등을 기획하며 내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인은 대학생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큰 규모의 캠페인이나 유명한 행사를 기획할 수는 없어도 나의 일상과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이들의 활동을 되새기며 휴가지에서 간단한 플로깅을 해보거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여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



바다지킴이 활동

'지구인'이 제안하는 일상 속 작은 친환경 실천 활동 9가지

- 
텀블러 사용하기
 테이크아웃용 컵 대신 텀블러를 써주세요. 텀블러를 지참하면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버스, 지하철로 이동해요.
- 
플러그 뽑기
 외출 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빼주세요. 플러그를 꽂고 있지만 해도 전기가 사용됩니다.
- 
샤워 시간 줄이기
 샤워 시간을 5분 줄이면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실내 온도는 여름 26℃, 겨울 20℃가 적당해요.
- 
스마트 영수증 이용하기
 종이 영수증은 이제 그만! 대신 스마트 영수증을 이용해 보세요.
-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하기
 이메일 한 통에 4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나누거나 기부해 보세요.
-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분리배출 기준을 숙지해 재활용이 가능한 캔, 플라스틱, 종이 등을 꼭 분리배출해요.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여름휴가 용품



페트병 샤워기 만들기



1 깨끗하게 세척한 페트병의 4분의 1 위치에 송곳으로 구멍을 여러 개 뚫습니다.



2 호스를 페트병 안쪽에 넣은 후 입구를 배관용 테이프로 감아 고정합니다.



3 호스 끝부분에 수도와 연결할 수 있는 호스 잠금 밴드를 고정하면 초간단 샤워기가 완성됩니다.



긴소매 티셔츠 종이컵 홀더 만들기



1 시보리가 있는 긴소매 티셔츠의 소매 부분을 자른 뒤 재단한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합니다.



2 종이컵 홀더의 손잡이 또는 걸이가 될 끈을 뒷면 양쪽에 박음질해 고정해 주세요.



3 종이컵을 넣을 입구가 될 뒷면에 여담을 수 있도록 자석 잠금장치를 달면 먼지 걱정 없는 종이컵 홀더가 완성됩니다.



미니 세프 박스 만들기



1 휴대가 가능한 손잡이가 달린 박스를 준비한 뒤 은박 보랭 팩을 박스 사이즈에 맞춰 잘라 안쪽 면에 붙여주세요.



2 박스를 닫을 수 있도록 상자의 옆 날개를 잘라 제거하고 스티로폼은 박스 옆면 사이즈에 맞춰 자릅니다.



3 긴 나무 막대로 두 스티로폼을 뚫어 박스 크기에 맞게 연결한 후 상자 안에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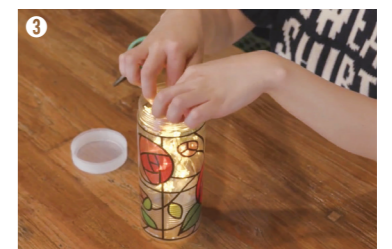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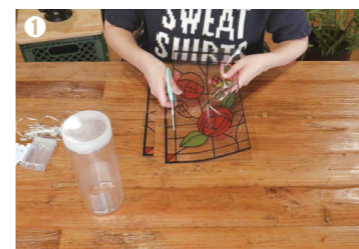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무선 간이 조명, 페트병 샤워기, 종이컵 홀더, 미니 세프 박스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무선 간이 조명 만들기



아웃도어 활동인 캠핑은 전기를 사용하기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도 감성 넘치는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초간단 무선 간이 조명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건전지용 전구 조명을 넣을 수 있는 뚜껑 달린 플라스틱 원통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예쁜 패턴이 그려진 데코용 시트지를 원통 크기에 맞게 잘라 겹면을 감싸듯이 붙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지로 켜지는 전구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나만의 무선 캠핑 조명이 완성됩니다.



무더운 여름, 힐링이 필요하다면! 여름을 즐기는 가장 즐거운 방법

공제회 숙박&교통&문화 혜택 모아보기



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서비스 한 번에 만나러 가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님들의 더욱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호텔·콘도, 레저·스포츠·교통,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5개의 The-K 직영호텔을 포함, 장기투숙 회원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인 'The-K 휴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공연·영화·음악·도서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그간 열심히 달려오신 회원님들께서 잠시나마 편안하고 행복한 쉼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공제회의 생활·문화·복지 제휴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고민은 잠시 잊고, 교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

직영호텔 공제회 직영호텔, 최대 20~70% 할인

이용법



◀ 직영호텔 전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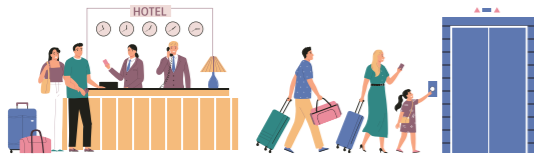
공제회 5개 직영호텔을 공제회원 할인가로 제공

①

전화로 예약 가능일
확인 후 예약

②

투숙 후
숙박요금 결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휴양 리조트 호텔”



The-K호텔서울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12길 70 ☎ 02-571-8100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보문관광단지 특급호텔”



The-K호텔경주

경주시 엑스포로 45 ☎ 054-745-8100

“제주 쪽빛 하늘과 맞닿은 바다를 마주한 5성급 호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제주시 탑동로 68 ☎ 064-729-8100

※ 제휴서비스 혜택은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고즈넉한 산 속에서의 즐거운 힐링과 여유”



The-K설악산가족호텔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70-7 ☎ 033-639-8100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 그 곳에서의 휴식”



The-K지리산가족호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 061-783-8100

한화&소노리조트 전국 유명 호텔&리조트를 회원가로 부담 없이

이용법 ☎ 1577-1382

①

더케이몰 (<http://www.thekmall.co.kr>)
로그인 후 '여행/숙박' 메뉴에서
리조트 선택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더케이몰 가입/로그인 후
해당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

②

예약 신청 화면에서
숙박 희망일 지정 후 신청.
※주중은 사용일 3개월전 선착순 예약
※주말 및 연휴는 사용일
60일~24일전까지 신청 후 추첨

③

투숙 후 숙박요금 결제



HANWHA RESORTS

SONO
HOTELS & RESORTS



한화콘도 전국 11개소

거제 벨버디어, 경주한화리조트, 대천한화리조트,
설악 한화리조트, 백암한화리조트, 설악소라노 한화리조트,
산정호수한화리조트, 용인한화리조트,
제주한화리조트, 해운대한화리조트, 평창 한화리조트



소노호텔&리조트 전국 13개소

소노문 단양, 소노문 델피노, 소노문 양평,
소노벨 경주, 소노벨 변산, 소노벨 비발디파크
소노벨 제주, 소노벨 청송, 소노캠 거제, 소노캠 여수, 쉼비치 삼척,
쉼비치 양양, 쉼비치 진도

제휴리조트&호텔 전국 84개 제휴 리조트·호텔을 특별할인 요금으로



이용법 ☎ 1577-3400

◀ 제휴리조트&호텔 전체보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제휴리조트&호텔 확인 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 후 이용 가능

※ 예약 시 공제회원임을 밝히고, 숙박 시 공제회원증 또는 제휴 신용카드 소지 필수
※ 연휴 또는 성수기간 동안 할인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객실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서울**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등 21개소
- 부산** 그랜드조선호텔 부산 등 13개소
- 대구** 호텔인터불고 EXCO 등 2개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등 3개소
- 광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등 2개소
- 대전** 유성호텔
- 울산** 호텔현대 울산 등 2개소
- 경기** 일성남한강 콘도 등 2개소

- 강원** 씨마크 호텔 등 14개소
- 충북** 포레스트리솜
- 충남** 아일랜드 리솜 등 4개소
- 전북** 라마다군산호텔 등 4개소
- 전남** 엘도라도 리조트 등 5개소
- 경북** 문경새재리조트
- 경남** 그랜드 시티 호텔 등 5개소
-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 등 4개소



The-K휴스테이 느긋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투숙 회원을 위한 특별 혜택



이용법 ☎ 1577-3400

◀ The-K 휴스테이 전체보기

숙박하는 객실일수에 따라 숙박료 지원금(1인당 최고 20만원/1년) 지원, 예산소진 시 숙박료 지원은 중단되지만 제휴요금으로 이용 가능



- 부산** 펠릭스 호텔, 한화리조트 해운대
- 경기**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 강원**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 호텔, 한화리조트 평창

- 충남**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 전북** 고창 힐링 카운티
- 전남** 엘도라도 리조트, 여수 베네치아 호텔

- 제주** 더큐브리조트 등 6개소

회원사 직영시설 폭넓은 편익을 위한 공제·연금기관 협약 복지서비스



이용법 ☎ 1577-3400

◀ 회원사 직영시설 전체보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요금 확인 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 이용 가능



- 경찰공제회(2)** **제주** 서귀포월드컵리조트(064-739-3001) **대한소방공제회(1)** **충남** 대천파레브 호텔(041-933-3489)
- 공무원연금공단(2)** **충북** 수안보 상록호텔(041-560-91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1)** **대전** 호텔인터시티 (042-600-6006~7)
- 충남**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14)

교통·스포츠·레저 전국 어디나 편리하고 여유롭게

교통·스포츠·레저 전체보기 ▶



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회원 대상, 기존 요금 대비 5% ~ 20% 할인 등 회원 및 가족(직계존비속) 성인 운임 할인(4~5%) 등
교통	기차여행 만들기	회원 예약 시 KTX 승차권 최대 20% 할인
공유차량서비스	쏘카	회원 대상 차량 대여요금 평일 60%, 주말 40% 할인 등
골프장	소피아그린CC 서산수 골프앤리조트 아덴힐리조트앤골프클럽 통영 동원 로얄CC	회원 대상 골프 그린피 이용요금 할인 (카트대여료, 캐디봉사료 별도)
기타 시설	SEA LIFE Busan Aquarium 한화 아쿠아플라넷 웨이브파크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송도 해상 케이블카 제주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파주 임직각 평화곤돌라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특별 할인 프로모션 적용 회원 대상 이용권 할인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주중/주말 스파 할인 회원 및 회원의 동반 3인 특별 할인 프로모션 적용

문화·공연 단조로운 일상 속 즐거움이 필요할 때

문화·공연 전체보기 ▶



공연	인터파크 세종문화회관	회원 대상, 공연별 최대 50% 상시 할인 회원 및 동반 3인, 제휴 할인가 적용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회원 및 동반 1인 포함 일반관, 일반석 9,000원 관람 혜택 매점콤보 2~3000원 할인 상시 ※일부 지점 제외
음악·도서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제너두 서점	회원 대상 이용권 할인 회원 대상 도서 할인 및 적립, 무료배송

공제회 회원님들의 실제 이용후기를 만나보세요!



2023년 지역별 축제와 제휴호텔&리조트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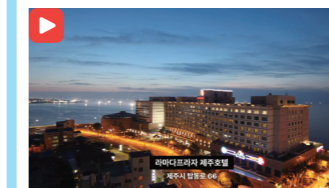


- The-K 크리에이터 이지원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별 축제와 근처의 직영호텔, 콘도, 리조트까지! 공제회원이자라면 할인받아 이용해보세요!



교직원공제회 직영호텔 제주 라마다 호텔 vlog



- The-K 크리에이터 강은영 선생님-

공제회 제휴 호텔 혜택으로 풍성한 휴식 즐기기! 공제회원이 직접 소개하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함께 떠나요!



쏘카 할인받고 아쿠아리움 방문하기



- The-K 크리에이터 강은영 선생님-

공제회원이자라면 누구나 쏘카 할인 가능! 할인받아서 쏘카 예약하는 방법과 공제회원만을 위한 아쿠아리움 할인가로 즐기기



공제회 제휴 혜택과 함께 하는 원주 기차여행



- The-K 크리에이터 안유빈 선생님-

기차 할인 받는 방법부터 원주 여행 브이로그까지! 공제회 제휴 혜택과 함께하는 알찬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만나보세요!



음악으로 전한 사랑과 감사의 선물

The-K 콘서트: PRESENT

지난 5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The-K 콘서트: PRESENT'를 개최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교육가족 3,300명에게 흥겨운 음악과 공연 선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한 이 시간은 시종일관 웃음과 환호가 가득한, 모두가 즐거운 축제날이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용기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공제회 잔치날

경희대학교가 말 그대로 시끌벅적했다.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덕분에 사방팔방 학생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봄을 맞은 캠퍼스를 만끽하고 있었던 것. 학교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은 평화의전당 앞에도 역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건 매한가지였다. 오후 7시 시작 예정인 'The-K 콘서트: PRESENT'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교환하려는 공제회 회원들이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 있는 직후라, 회원들의 얼굴에는 그야말로 미소가 가득했다.

무려 1만8,900여명이 응모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회원들의 표정은 마치 공원에 놀러 온 어린아이 같았다. 티켓과 응원봉을 받아 들고 로비 곳곳에 마련된 포토 존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사연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도 평소 좋아하던 가수와 음악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공제회에서 마련한 여러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이렇게 좋은 음악회에 당첨됐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퇴직해 주중에도 시간이 많으니 꼭 오고 싶다고 사연을 써 보냈거든요. 제가 뮤지컬 팬이라 평소에도 공연을 자주 보는 편인데 오늘 출연하는 홍지민 씨와 정선아 씨 무대가 특히 기대됩니다.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겠습니다. 공제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 창원에서 KTX를 타고 달려왔다는 이미순 회원과 남편 이효성 씨가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콘서트 현장에서 조성된 사연 이벤트에도 많은 회원이 몰렸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지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이 이벤트를 위해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정성껏 적어 내려간 회원들. 그 사연을 읽다 보니 절로 행복한 미소가 새어 나왔다.



공연 관람을 위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앞 광장에 모인 회원들



지금 기뻐하고 미래를 함께 맞이하자

오늘 사회를 맡은 정지영 아나운서는 “오늘 공연의 타이틀 PRESENT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현재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다시 찾은 선물 같은 일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자는 의미를 이 공연에 담았다”는 말로 무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오늘 1층부터 3층까지 객석을 꽉 채운 회원들을 위해 가장 먼저 단상 위에 오른 사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이었다. “오늘 콘서트에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한 키팅 선생이 외치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유를 만끽하라’는 카르페디엠의 의미를 선물하고자 한다. 참석하신 회원분들 모두 이 음악 선물로 힘내셔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인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정지영 아나운서가 로비에서 회원들이 남긴 사연을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 서비스’로 5행시를 지은 재치 넘치는 회원,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어 우울한 가운데 좋은 공연으로 힐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겠다는 회원 등 모두가 다양한 사연에 응원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신나는 음악, 그보다 더 즐거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첫 번째 공연은 ‘지금의 나와 만나다’라는 부제를 가진 뮤지컬 갈라 쇼였다. 손꼽히는 실력파 뮤지컬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정선아, 홍지민 씨가 등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

한 이 쇼는 뮤지컬 배우를 꿈꿨던 고교 교사 선아와 교사가 되기를 꿈꿨던 뮤지컬 배우 지민이 학교 축제에 등장한다는 큰 줄거리로 교사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두 배우는 ‘I’ll always love you’, ‘Memory’, ‘You can’t stop the beat’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를 불러 힘찬 박수를 받았는데, 특히 다 함께 부른 피날레곡인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는 모두의 가슴에 폭풍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유독 뜨거운 박수 세례를 받았다. 두 번째 ‘지금의 우리와 만나다’의 출연진은 실력과 여성 듀오 가수 다비치였다. 2008년에 데뷔해 빼어난 실력과 예능 감각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하며 인기를 누려온 이들을 공제회 회원 모두가 박수로 반갑게 맞이했다. 다

비치는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 너무 정적이고 점잖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인 것 같다”며 미소를 지어 객석의 웃음을 자아냈는데, 노련한 무대 매너로 회원들을 공연에 참여시키면서 그간의 히트곡을 열창해 객석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8282’, ‘팡파레’, ‘두사랑’ 등 이어지는 히트곡에 응원봉을 흔들며 떼창을 하는 회원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와 짐을 벗어버리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십센치(10cm)가 등장했다. 독특한 음색과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가사, 독창적이면서도 친근한 멜로디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십센치를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이하는 회원들. 밴드와 함께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십센치는 ‘그라데이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폰서트’ 등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끈 노래를 연달아 불러 객석을 들뜨게 했는데, 특히 앙코르곡으로 선택한 ‘애상’은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에 회원들의 열광적인 함성과 환호를 이끌어냈다. 모두가 일상의 고단함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잊고 마스크를 벗은 채 마음껏 즐길 ‘The-K 콘서트: PRESENT’. 회원들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힘찬 응원과 위로가 모든 회원에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견고한 버팀목, 다시 날아올 수 있는 힘찬 날개가 되었기를 바란다. ㉔



Mini Interview

마스크 없이 즐기는 공연, 너무 행복해요

김미옥 회원, 김남희 씨



콘서트 당첨 문자를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며 많이 힘들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어 더 좋았어요. 오늘 콘서트 덕분에 제가 교직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동행한 동생도 느낄 수 있게 해주 더 뿌듯했구요(웃음) 콘서트 출연진이 탄탄해 특히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동생도 저도 그간의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을 것 같아 설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자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민 회원, 정영민 씨



콘서트에 당첨됐다는 소식만으로도 믿기지 않았는데 무대에서 저희 사연까지 소개해 줘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가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객석에 앉았는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도 작업상 다른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엄청 부러워했답니다(웃음)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착한 딸, 멋진 공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현주 회원, 고수민 양



오늘 하루, 중3인 딸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행복합니다. 딸이 예비 고로서 경희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어 하는데 때마침 이곳에서 콘서트가 개최돼 이것은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달려왔어요. 또 딸이 아이돌보다는 다비치나 십센치 같은 가수를 더 좋아하는데 여기에 더해 자리까지 너무 좋아 공연을 아주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착하고 이쁜 딸이 계속 이렇게 잘 커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게 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엄마, 감사해요!”(고수민 양이 엄마 옆에서 외치는 소리)

천혜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최고의 그린 The-K 소피아그린CC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명산 오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소피아그린CC는 교직원공제회 회원과 일반 골퍼 사이에 최고로 꼽히는 골프장이다. 아름다운 코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대중형 골프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소피아그린CC를 방문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용기



지혜의 땅으로 고객을 모십니다

2001년에 출발,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The-K 소피아그린CC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그룹의 일원인 골프장이다. ‘소피아(Sophia)’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인 ‘지혜(智慧)’를 뜻하는 것으로 소피아그린CC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소피아그린CC는 한 번 와본 회원은 반드시 다시 찾는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회원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이유는 매우 다양인데, 무엇보다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회원제 어느 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코스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피아그린CC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재자연화(在自然化)를 이루었다. 약 191만7,330m²(58만여 평) 부지에 코스 전장 9,581m, 최신 설비의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을 갖춘 이곳은 세종 코스, 여강 코스, 황학 코스 등 총 27홀로 모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 레이팅을 구성했고, 각 홀에는 Blue, White, Gold, Red 티를 설치해 연령별, 기량별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홀별 난도에 따라 연못 및 85개 벙커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매 홀 플레이에 묘미를 더해 회원들로 하여금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짜릿한 긴장감을 안겨 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피아그린CC는 친환경 골프장으로도 유명하다. 그동안 환경에 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골프장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린 만큼 ‘친환경’을 지향점으로 삼는 이곳의 행보는 교직원공제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도 함께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부의 상징’에 이어 ‘환경 파괴’

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소피아그린CC는 친환경 골프장 협약을 맺고 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골프장 및 인근 지역 환경 피해를 위해 매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집중 시행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친환경 정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소피아그린CC 한상석 감사의 설명이다.

인문학·레저·스포츠 골프의 모든 것을 담다

아름다운 코스와 꼼꼼한 관리로 정평이 난 소피아그린CC를 한 바퀴 둘러보자. 오갑산 자락에 위치한 만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절경을 이룬다. 15만 톤의 담수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연못을 끼고 있는 여강 코스와 황학 코스는 연못과 계곡을 가로지르며 즐기는 전략적 코스로 골프 삼매경에 빠지기에 충분한 레이아웃을 자랑한다. 또 세종 코스는 깊고 수려한 산세와 암반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코스로 도전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을 물씬 풍긴다. 이곳은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 기능 및 노출암의 경관적 기능 등이 잘 보존된 코스로 손꼽힌다. 각 코스에 적혀 있는 설명 역시 지역의 역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기에 좋다.

코스를 도는 동안 사방에서 에어레이션 작업이 한창이다. 답압에 의해 고결화된 토양을 기계 작업을 통해 토양의 공기를 교환하고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이 작업은 최상의 잔디 컨디션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정성스럽게 필드를

돌보는 소피아그린CC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풍경이다. 클럽하우스도 인상적이다. 홀 접근성과 용이성이 좋아 티오프에 앞서 로비 라운지에서 미리 각 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 티잉 구역으로 가는 동선 역시 편리하니 이용객들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잠시 여유를 즐기고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한다.

1층 라운지에 있는 '풀빛알천지' 책장은 말 그대로 작은 골프 도서관이다. 골프와 관련한 수많은 책을 소장해 회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골프 레슨 교본이 아닌 골프의 세계를 인문학과 역사의 관점으로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오래 머무를 만하다.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오면 클럽하우스에서의 식사도 즐겨 봐야 한다. 여주에 자리 잡은 골프장답게 운기가 잘잘 흐르는 맛있는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입맛을 돋우니 말이다. 회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골프장으로 변함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소피아그린CC! 지난 시간보다 다가올 시간이 더욱 기대되는 것은 이곳이 바로 교직원공제회의 소피아그린CC이기 때문일 것이다.



Interview

“언제나 고객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한상석 소피아그린CC 상임감사



Q 상임감사로서 소피아그린CC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소피아그린CC는 3개 코스 27홀 전장 9,581m의 코스로 구성된 골프장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수익과 함께 기금 확충에도 힘쓰는 공공 골프장이지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타 골프장보다 골프장 사용료(그린피)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뿐더러 서비스 품질도 우수해 가성비가 탁월한 골프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 차원에서 2016년 1기를 모집해 '골프 꿈나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해 여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기를 다시 모집했습니다. 현재 소피아그린CC에서 퍼팅 연습, 골프 멘토와의 만남 등 학생 맞춤형 수업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시행함으로써 미래 대한민국 골프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Q 소피아그린CC 클럽하우스에 있는 '풀빛알천지' 책장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대한민국에서 한 장소에 골프 관련 책 500여 권을 보유한 곳은 소피아그린CC가 유일할 겁니다. 이곳에 비치할 책을 수집하기 위해 발로 댄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는 골프 책이 품절된 경우가 많아 애로가 많았고 제주, 천안 등 지방 출장을 다닐

때마다 중고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에서 구하지 못한 귀한 책들을 구입했습니다. 지면을 통해 부탁을 드리자면, 누구라도 지니고 계신 골프 책을 소피아그린CC '풀빛알천지'에 기증이나 대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Q 감사님께서 「골프장 이야기」 1~3권을 직접 집필하셨습니다. 감사님이 생각하시는 골프란 무엇인가요? 또 골프의 대중화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미로 즐기는 골프는 심판 없이 하는 '신사 스포츠'로 매너와 에티켓을 우선으로 지켜야 하며 골프 규칙도 '공은 놓여 있는 상태 그대로, 거리는 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신에게 엄격하되 동반자에게 너그럽게 배려하는, 이른바 수양 운동'입니다.

4인 1팀으로 하는 우리나라 골프는 동반자가 있어 명랑 골프를 하더라도 품위 있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평상심으로 허심적타(虚心適打, 마음을 비워 원하는 스윙 샷을 얻는다)로 장타와 방향성으로 '히어 앤 나우(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와 '파 앤드 슈어(far and sure, 멀리 그리고 똑바로)'를 추구하도록 권합니다.

(사)대한골프협회는 경희대학교 골프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8~11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4,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 한국골프지표'를 발표했는데, 국내 골프 활동 인구가 1,176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골프는 이제 10명 중 3명이 즐기는 운동이 되었고, 국민소득도 3만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제로 워라밸을 중시하면서 여유가 생겼기에 국민 건강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가 이뤄진 여가 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태계 변동은 불가피하나 소피아그린CC는 지난 21년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 환원 사업 등 지역 상생 발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만큼 높은 경제 가치와 더불어 긍정적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Q 감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지적과 감시였다면 이제는 컨설팅과 예방으로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듯합니다. 향후 업무의 각오 및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출자회사의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교직원공제회에서 감사팀장을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업무의 영역을 컨설팅과 예방기능으로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최성수기를 지나면서 현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 경영을 추구하면서 공공형 골프장으로서의 모범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Q 소피아그린CC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부터 BMW(버스, 메트로, 워킹)로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고 '투명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철학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잔디'와 '캐디'가 중요한 골프장의 특성상 잘 관리된 잔디와 어드바이스를 잘하는 캐디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고객과의 소통, 지속 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지혜의 땅' 소피아그린CC에 오시는 고객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여러분의 따뜻한 노고를 응원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간에도 온도라는 게 있다면 이곳은 '36.5°C'입니다. 체온처럼 따스한 문화가 교육청 안팎을 가득 메운 까닭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일구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갑질 차단과 청렴 양산을 표방하는 곳답게, 온화하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유난히 돋보이지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더 애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람들을 응원하러 「The-K 매거진」을 싣고 커피트럭이 달려갔습니다.

글 박미경 / 사진 김선아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천창수 교육감



커피트럭, 소통하는 공간에 오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다른 곳엔 없는' 힐링 산책코스가 있다. 교육청 바깥을 에둘러 걸을 수 있는 700m의 '모두랑길'이 그것이다. 2년 전 만들어진 이 둘레길은 청량한 솔바람이 불어오는 '솔숲길'과 보랏빛 붓꽃들이 피고 지는 '붓꽃길'로 나뉜다. 초등학생들은 아침마다 이 길을 지나 학교로 가고, 지역 주민들은 틈틈이 이 길을 걸으며 일상의 쉼표를 찍는다. 이 길에서 쉬어가는 건 비단 사람만이 아니다. 솔숲길이 지

나는 교육청 뒷마당엔 '묘한 쉼터'라는 곳이 있다. 반반이, 죽순이, 마야, 세 마리 고양이가 이 공간의 주인공이다. 교육청 동물사랑 동아리 '야옹야옹' 회원들이 고양이 집사역할을 맡고 있다. 직원과 주민, 아이들이 고양이를 매개로 허물 없이 소통한다. 같이 쉬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한다. 이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함께한 홍보팀 직원이 귀띔한다. 주민들의 소통은 교육청 안에서도 이뤄진다. 청사 1층에 있

는 '숲375'는 울산사회적경제공동체(울산 지역 60여 개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함께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가 운영하는 카페다. 교육청 내에 있는 '청마실'(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카페)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데,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이 '착한 공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간다. 청사 안팎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처럼 웃고 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여실히 증명해 보인다.

텀블러를 들고 커피트럭 앞으로

5월 30일 오전 10시. 이 따뜻한 공간에 두 대의 커피트럭이 당도했다. 최근 여러 이슈가 있었던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The-K 매거진」을 싣고 달려 온 것이다. 이날은 울산광역시에서 17년 만에 개최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폐막일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온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와 지원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안전협의회를 열고, 대회 기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3,000여 명의 학생 응원단(서포터즈)을 구성해 학생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을 보탰다.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마친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원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피트럭 곳곳에 담겨있다.

오늘의 커피트럭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천창수 교육감의 남다른 조직문화를 응원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2018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모토로 힘찬 항해를 시작했던 노옥희 교육감의 뒤를 이어 한 아이 한 아이가 다 주인공인 희망의 울산 교육을 일궈가고 있다. '모두가 존중받는 울산 교육'을 표방하며, 갑질과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을 양산하는 조직문화를 일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전 직원에게 '청렴 양산'을 나눠주며 갑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 천창수 교육감은 본관 교육청 1층 로비에 '청렴우편함'을 비치해 청렴 문화 확산 및 부패근절 아이디어나 울산교육청 소속 직원 간 미담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맑은 바람이 쉽게 불어오는 곳. 거기가 바로 여기다.

오전 11시. 커피트럭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거의 모든 직원이 텀블러를 들고 온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대하는 울산교육청의 태도가 단번에 읽히는 순간이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천창수 교육감도, 격려차 방문한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각자의 텀블러를 들고 와 음료를 담아 간다. 과한 의전은 이곳에 없다. 대신 따뜻한 존중이 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향한 따뜻한 응원

"어떻게 이렇게 예쁜 트럭을 몰고 오셨어요?" 오늘의 커피트럭 행사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소통해 온 재정복지과 김덕순 과장과 6명의 경리팀 직원들은 커피트럭의 '실물'에 적잖이 감동한 모양이다. 기념사진을 찍는 그들의 뺨위로, 선선한 바람 한 줄기가 살며시 지나간다. 애초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고맙게도 비구름이 사라진 상태다. 온도도 습도도 커피트럭 앞에서 담소를 나누기에 매우 적절하다. 선물 같은 날씨가 아닐 수 없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다. 한 손에 음료를



든 직원들이 산책길로, 나무 벤치로, 고양이 쉼터로 저마다 휴식을 취하러 간다.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울산광역시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행정실 교직원 300명이 삼삼오오 교육청으로 온다. 2시부터 시작될 교직원 교육 때문이다. 커피트릭이 자신들을 기다리는 줄 미처 몰랐던 그들은 뜻밖의 선물을 여간 반기지 않는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애들이 많이 컸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과 그간의 안부를 나누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제대로 누린다.

“The-K 매거진”도 인기가 좋다. 그중 유독 꼼꼼히 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다가가니, 울산교육청 소식지 「우리아이」 제작을 담당하는 유진아 주무관(공보담당관)이다. “The-K 매거진” 웹진을



자주 봐요. 편집 그리드나 생생한 인터뷰 등 참고할 만한게 많더라고요.” 햇살같이 환한 그의 미소에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말하는 곳이다.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서 우리 교육의 외등을 환히 밝혀줄 것이다. 오늘의 커피트릭은 그 미래를 향한 응원이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가 전혀 길지 않게 느껴진 것은 그 때문이다. ㉔



Mini Interview

울산의 미래 교육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희 장학사 (교육혁신과)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울산미래교육박람회’를 준비하는 담당자입니다. 울산의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학술마당과 포럼, 부스체험관이 마련돼요.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은 ‘멀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오늘, 내일, 또 그다음 내일이 쌓이는 미래교육’을 그려보고 싶는데 고민이 많아요. 저뿐 아니라 많은 기관, 부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커피트릭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석 잔쯤 마실 거예요

박종국 주무관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에서 일하는 저는 울산 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자부해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 입학 준비금 및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급 등으로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0’에 수렴해 가는 중이에요. 전임 노목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작한 것들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 왔다는 것이 문득 뭉클해요. 한 달 후면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거든요. 지난 6년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많이 웃고 웃었어요. 그 때문인지 오늘의 커피트릭이 마치 저를 위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석 잔쯤 마실 생각이예요.

수고했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아 뭉클합니다

박규운·조성진 공보담당관 (홍보팀)



저희는 홍보팀 직원이에요.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청렴도 평가나 교육재정평가, 국어책임관 1위 수상 등 교육청의 각종 성과도 자랑하고 있어요. 울산 교육청 전체 이미지를 디자인하죠.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응원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조금 전 한국회 선수 영상 조회 수가 7만에 달해서 자축하고 있었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 폐막일에 딱 맞춰 The-K 매거진 커피트릭이 와주니 정말 기분 좋네요.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울산교육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감사, 커피 향이 가득했던 초여름 축제 강원도 햇살 아래 의료진과 함께한 커피타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 명의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까지 얼마의 사람과 사랑이 필요할까요? 병원 이미지는 의사와 간호사로 대표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를 위해 온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커피트릭의 주인공인 사회사업팀 이혜민 차장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는 이곳에서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자처하며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음으로 양으로 사회사업팀을 도와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커피를 대접하고 싶다는 이혜민 차장의 따뜻한 마음에 「The-K 매거진」이 기꺼이 화답했습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용기



의료 사각지대 없는 세상을 꿈꾸며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위상은 강원도를 넘어선다. 원주충주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영월군·횡성군,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을 관할하고 희귀질환 거점 센터로서 강원도와 대한민국 중부 지역은 물론 저 멀리 경상권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건강까지 지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오랜 역사를 빈틈없이 채워 온 덕분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커피트릭이 오늘 이곳 원주로 달려온

이유는 사회사업팀 이혜민 차장이 보낸 가슴

울리는 사연 덕분이다. 의사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병원에서 사회사업팀은 다소 낮은 부서지만, 한 번이라도 사회사업팀의 지원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병원 내 사회사업팀 한마디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의료진과 환자,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더욱 커졌다.





“병원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극빈층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환자가 치료받고 회복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연간 50%나 늘었다는 저소득층 환자는 사회사업팀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었다. 9명의 팀원 모두가 환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세심히 듣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 안팎으로 뛰어다녀야 했던 것.

공감과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혜민 차장은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공감’을 꼽았다. “가정사, 개인사를 전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보호자가 없는 환자, 자살을 시도한 환자,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직접 듣거나 그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혜민 차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하고 투명한 기금 집행이라면서 기부금이나 공모 사업을 통해 모으는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의료진과의 협업,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맞춰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병원 의료진의 마인드는 정말 남다르세요. 환자를 진료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간파하고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시고, 또 직접 기부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혜민 차장은 병원 내부 집행, 정부 기관과의 연계, 지자체 연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도움과 협조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이 과정에 대해 의료진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제가 초년병 시절에 골수이식을 받아야 했던 여고생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급식당에서 일하며 어렵게 딸을 키우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식에 필요한 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무사히 퇴원을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원주권 내 한 대학교에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특강을 하러 갔는데 한 여학생이 쪽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니 바로 골수이식 비용을 지원받았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자기도 도움을 받았던 만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고요.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정말 크게 느꼈지요.” 이혜민 차장은 당시 일이 어제 같은 듯 눈가를 축축이 붉히더니 이내 미소를 짓는다.

시원한 커피 한잔, 모두가 행복했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한낮의 햇빛이 점점 뜨거워졌다. 그에 맞춰 병원 후문 주차장에도 의료진이 점차 몰려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오픈 시간보다 빨리 도착해 오매불망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의료진의 웃음이 마치 솜사탕이 돌돌 말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해맑다.

동료들의 주문을 받아 수십 잔을 트레이에 아무지게 챙겨가는 직원부터 “먹고 싶은 음료가 제각각이라 어떡해요. 더



운데 힘드시죠?”라며 커피트럭 바리스타들을 걱정하는 살가운 간호사, 보라색과 민트색 트럭 앞에서 연신 기념사진을 찍으며 커피트럭 인증샷을 남기는 직원까지 현장은 말 그대로 즐거움 그 자체다.

“처음 커피트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걸 누군가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어요. 시원한 음료로 원기충전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팀 김연철 사원이 커피를 주문하는 동료들 옆에 서서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의료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단연 이혜민 차장과 사회사업팀 팀원들이다. “The-K 매거진”으로 부터 커피트럭 선정 소식을 들은 뒤 정성을 담은 편지 글과 포스터까지 직접 제작해 병원 곳곳에 붙이면서 홍보를 할 만큼 공을 들인 터라 그 수고가 한순간에 녹는 듯한 즐거움을 맛본 것.



“바라는 점이요? 앞으로 더 많은 의료사회복지사가 일하면서 각 진료 특성에 맞는 서포트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백순구 원장님 이하 많은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상황에서 사회사업팀의 일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병원의 위상을 높여준 사회사업팀

황금 교수 (신경외과)



사회사업팀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직원이 한 명 뿐일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만큼 성장한 팀이 됐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 환자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준 덕분에 교수들의 인지 역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작년에 개원 이래 최초로 연간 의료비 3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지요. 우리 사회사업팀 팀원들은 언제봐도 사랑스럽습니다. 늘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도 은혜받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춧돌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사업팀, 더 큰 희망의 소통 통로가 되길 바라요

함정숙 파트장 (112병동)



오늘 커피트럭 이벤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공지 사항을 통해 알았습니다. 평소 취약층 지원에 애쓰시는 사회사업팀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선물해 주신다니 정말 기뻐요. 병원으로 커피트럭이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꼭 제작발표회에 참석할 연연이 된 기분이에요(웃음) 평소 이혜민 차장님은 워든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열의가 있고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또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네요. 코로나19 기간 모두가 힘들었는데 사회사업팀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큰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직원 공제회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무더위 식히는 시원한 커피 한잔, 힘이 납니다

김소민 간호사, 김은희 파트장 (환자경험파트)



이렇게 무더운 날에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마시니 힘이 절로 나네요. 하하. 오늘 커피트럭을 사회사업팀과 교직원공제회에서 보내주신 경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사회사업팀에서 의료진에게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커피트럭을 선물해 주신 건데 사실 저희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사회사업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돕기 위해 많이 애써 주시거든요.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저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 사회사업팀 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공제회만의 영화 예매권 증정 혜택!

제2차 씨네&JOY 7월 13일 ~ 26일까지 응모, 상시 예매 할인 서비스도



공제회가 씨네&JOY 영화 예매권 증정 행사를 통해 공제회원들에게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씨네&JOY 영화 예매권 증정 행사는 공제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분야인 영화 관람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공제회 인기 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공제회원 총 3만 6천 명에 영화 예매권 1인 2매를 증정한 제1차 씨네&JOY 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2차 행사 역시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중 원하는 극장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벤트 응모 기간은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첨을 통해 선정된 회원 4만 4천 명에게는 모바일 영화 예매권이 1인 2매씩 증정된다. 영화 예매권 사용기간은 발송월로부터 6개월이며, 당첨 발표일은 8월 1일이다. 이와 함께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영화 예매와 매점코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휴 할인 서비스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할인 예매권 번호와 매점코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예매하고 영화 관람 시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점코드를 구매할 수 있다.(1일 1회 2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마음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공제회 현직 회원 대상 심리상담 무료 서비스

공제회 현직에 있는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일상의 모든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 및 코칭 받을 수 있는 'The-K 마음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The-K 마음심은 일상의 고민부터 다양한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 우울·불안 등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상담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제회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업 기간 2년 내(22~23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1:1 개별상담(대면/화상/전화)은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은 4회의 무료 상담이 제공된다.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 모바일 앱, 전화(080-080-598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 회사 및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The-K 마음심 참조

매달 2회 공제회 소식과 이벤트를

메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메일 소식지, The-K 뉴스레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주요 소식을 모은 공제회 이메일 소식지 The-K 뉴스레터를 매달 2회씩 공제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공제회원이라면 누구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The-K 뉴스레터 구독 신청을 하면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 공제회 소개 > 홍보마당 > SNS 및 뉴스레터 > 뉴스레터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매달 초 공제회 주요 일정을 모아 전해주는 '교공 다이어리' 등 공제회 주요 소식과 더불어 해당 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공제회 복지서비스 및 각종 이벤트 응모 일정,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익한 생활 정보 등 알찬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7월에는 12일~13일, 26일~27일에 뉴스레터가 발송될 예정이며, 매달 2번째 뉴스레터에는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 공제회 소개 > 홍보마당 > SNS 및 뉴스레터 > 뉴스레터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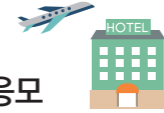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 환경팝업마켓 '마르쉐 채소시장@여의도'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여의도 본사 The-K타워에서 '마르쉐 채소시장@여의도'를 지난 5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제회의 ESG경영을 실천하고, 참여자의 환경 의식 강화 및 친환경 물품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공제회가 주최한 이번 두 번째 마르쉐 채소시장에는 친환경 농작물 생산자 37팀, 공제회 임직원 약 420여명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문화 전파를 위한 토크 워크숍, 바다유리 업사이클링 워크숍 등도 진행되었다. 물건을 담아가갈 용기나 장바구니를 가져온 200명에게 선물 또는 덤, 할인을 제공하는 '제로웨이스트 이벤트'와 종이가방과 유리병 등 재활용 포장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시살림 부스' 등도 운영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소비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모색할 때"라며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앞으로도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교육가족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하고 제주도 가자!

장기저축급여 가입 이벤트, 7월 3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에 신규 가입한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가입 이벤트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은 세전 연복리 기준 4.60%로, 지난 6월 1일 기준 3.80%에서 0.80%p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이벤트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기간 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응모할 수 있고, 응모한 회원 중 2천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고구좌 가입 회원(1,000구좌 이상) 중 20명에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박 3일 숙박권(2인 기준, 조식 포함)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8월 22일이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민건강보험 등 5개 기관과 청렴경영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6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으로, 자체감사기구의 협력 강화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공제회는 5개 기관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합동워크숍 개최 등으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힘쓰는 6개 기관이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여,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he-K교직원나라,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The-K교직원나라는 지난 6월 13일 S2B 사용기관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S2B 전용 구매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사용기관들은 S2B에서 편리하게 카드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The-K교직원나라는 하반기부터 S2B 견적정보 이용 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결제 시 카드정보를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하는 카드배치 결제기능 서비스를 IBK기업은행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The-K교직원나라 이상숙 대표이사(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는 "IBK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이용기관들의 니즈를 반영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S2B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S2B에 입점하여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K호텔서울

여름 휴가철, 도심 속 힐링 호캉스를 위한 다채로운 패키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The-K호텔서울이 피톤치드가 가득한 호텔에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인다. 우선 공제회원들을 위해 8월까지 **여름 객실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해당 객실은 디렉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9만9천 원, 주말(금~토)은 11만9천 원, 여름 성수기 기간(7월 22일~8월 14일)에는 1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우첼로 조식 패키지**는 디렉스 트윈 1박과 우첼로 조식 뷔페 2인으로 구성되어 회원 할인가로 주중 14만8천 원, 주말 16만8천 원, 여름 성수기 기간 17만9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우첼로 디너 패키지**는 디렉스 트윈 1박과 우첼로 세미 뷔페(디너) 2인으로 구성되어 회원 할인가로 주중 17만1천 원, 주말 19만1천 원, 성수기 기간 20만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욱 분위기 있는 호캉스를 위해 **와인&로맨스 패키지**도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디렉스 트윈 1박과 함께 와인 2병을 제공하는 2인 전용 와인 패키지는 회원 특별가로 주중 12만1천 원, 주말 14만1천 원, 여름 성수기에는 15만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앞선 세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호텔 내 피트니스 클럽 이용 시 50% 할인 혜택과 우첼로, 베이커리 카페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한편 호텔 내 넓은 정원 '우첼로 가든'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우첼로 가든 바비큐**도 준비되어 있다. 테이블 간격이 여유로워 가족, 연인끼리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고, 바비큐 운영 시간은 매주 목·금요일 저녁 18시~21시까지, 토·일요일은 점심 12시~15시까지, 저녁 18시~21시까지다. 모든 식사는 1일 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공제회원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우천 시 및 혹서기 휴장기간(7월 24일~8월 16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수 와인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우첼로 와인 장터**를 운영한다. 몰도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의 레드·화이트·스파클링 와인 50여종이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단 와인은 테이크아웃 전용 상품으로 식음업장 내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The-K호텔서울은 양재시민의 숲, 양재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호텔 내부의 넓은 녹지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도심 속 바쁜 일상을 벗어나 편안하고 여유롭게 오감만족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인 공간이다. 호텔 옆 서초문화예술공원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을 비롯하여 43종 9만5천여 그루의 나무로 조성한 울창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상쾌한 향기와 함께 진정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더위를 날려주는 Summer Festival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경주의 아름다운 여름을 만끽하며 시원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023 Summer Festival 패키지**를 진행한다.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이용금액은 회원 할인가로 주중 20만 원부터 이용가능하다.(요일별 상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The-K호텔경주 야외 수영장을 임시 개장 기간(7월 1~2일, 7~9일, 14~16일)과 상시 개장 기간(7월 21일~8월 27일) 동안 대인 2만4천 원, 소인 2만2천 원에 이용가능하며, 이 외 온천사우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더불어 호텔 커피숍 아이리스에서는 썸머 스페셜로 눈꽃빙수 및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만나볼 수 있으며, 호텔 한식당 무궁화에서는 '더케이 계절 보양식'으로 칩냉면과 한방삼계탕을 판매하니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디너뷔페**를 성인 4만 원, 어린이 2만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투숙 고객은 디너뷔페 사전 예약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사우나**에서 더위를 씻어 보는 것도 좋다. The-K호텔경주 온천은 천연나트륨, 염소, 유황성분이 함유된 수소이온 농도 9.12pH의 천연 알칼리성으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순수온천수가 피부 혈행 개선, 류머티즘, 신경통, 창상요통, 피부병 및 외상 후유증, 피부미용 등에 효험이 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와 소나무 숲속에 위치하여 피톤치드가 풍부한 노천온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당장 지리산 계곡으로 오랑께' 이벤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지리산에는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계곡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지리산 계곡은 물이 맑고 시원하기로 이름나 있어 매년 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리산의 대표 명소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여름을 맞이한 공제회원들을 위한 7월 특별 이벤트로 **'당장 지리산 계곡으로 오랑께'** 이벤트를 준비했다. 지리산에 있는 많은 계곡 중 하나를 방문하여 지리산 계곡 이름이 나온 풋말 앞에서 인증사진 1장, 계곡에서 행복했던 순간 또는 재밌었던 순간의 인증사진 1장, 총 2장을 찍어 호텔 공식 이메일(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산수유이이드를 2인 1잔씩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7월 투숙 고객에 한해 한 달간 진행하며, 인증사진은 체크인 및 체크아웃 날짜를 기준으로 객실 1실 당 1인

개인 방문일 경우에 한하여 본인 사용 시에만 참여할 수 있다. 올여름 The-K지리산가족호텔에 머물며 지리산 계곡에서 더위도 잊고 산수유의 고장인 전남 구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산수유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걸음 더 가까이 걷는 제주도 도보 여행 프로그램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 구도심의 역사를 가깝게 경험해볼 수 있는 **제주도 로컬 도보 여행 프로그램**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주도 로컬 도보 여행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배출량 0(제로)을 뜻하는 '넷제로(Net Zero)' 관광을 지향하며, 제주 로컬&워킹 트립 전문여행사 '트립1849'와 협업하여 호텔을 방문하는 투숙 고객 전용으로 진행된다. 그 중 제주 구도심의 관광지를 걸어보는 **'고위크 66루트' 여행 프로그램**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출발해 무근성을 지나 관덕정, 동문시장, 탑동까지 전문 가이드와 함께 총 3km 구간을 약 2시간의 도보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제주 구도심의 미술관을 둘러보는 **'라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호텔 내부에 전시된 아트 갤러리 'Art in the Hotel'의 작품과 호텔 근방 아라리오 뮤지엄 탐동시네마의 앤디 워홀, 백남준, 키스 해링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문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투숙 고객은 월~수요일에 진행되는 '고위크 66루트' 여행 프로그램과 목~토요일 진행되는 '라마다 도슨트'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고, 한 회당 최대 정원은 10명이다. 오전 10시에 호텔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생수와 호텔 셰프가 직접 베이킹한 쿠키 및 페이스류리가 함께 제공되어 투어하는 동안 간식을 즐기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호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신상품 가입 회원을 위한 혜택

3대플러스치매공제 전용 특화 헬스케어서비스 신규 개시!

3대플러스치매공제,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 가입 회원을 위한 혜택! 특화 헬스케어서비스

미리-care (평상시)

- 간호사 건강상담(24시간 365일)**
각 진료과별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과의 1:1 건강상담
- 건강검진 설계 및 우대 예약**
생애주기, 건강상태에 필요한 맞춤형진 프로그램 안내, 할인예약 및 결과 상담
- 암 특화 건강검진 우대**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 암 특화검진 우대가 지원(최대 26%)
- 건강(질환) 정보 제공**
시기별, 이슈별 질병·건강정보 매일 제공

※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함께-care (사고질환 발생&회복시)

- 전문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
진료과목별 전문의료진과 병원 안내 및 빠른 진료예약 대행
- 간호사 진료 동행(수도권)**
중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 차량 에스코트(서울)**
중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or 입원 시
- 간병인/가사도우미 지원**
중대질환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 건강(환자)식 제공 및 우대가 지원**
중대질환 수술 후 회복 시 1개월분 무료, 추가 이용 시 우대가 제공(최대 20%)

※ 중대질환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치매(CDR3인 경우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동반 필요)

특화-care (교직원 질환 차별화)

- 교직원 질환 특화 케어**
성대결절, 탈모, 하지정맥류 등에 대한 건강정보, 상담, 진료예약 대행
-의료용 압박스타킹 구매 우대(하지정맥류)
-탈모유전체 검사 우대가 제공(56%)
- 만성질환(당뇨) 케어(대상자 신청시)**
10주 생활습관관리 프로그램 제공
- 치매자가검사와 인지향상게임(전용앱)**
CDR1 진단자 신청시 치매전문의의 화상상담 1회 제공(2~3회차 우대가 제공)
- 심리상담 3회 무료(추가 시 우대가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신청 시
- 시니어 맞춤 안부콜**



서비스 제공 대상
3대플러스치매공제,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 주급여 및 기본특약 1구좌 이상 가입 건의 피급여자

서비스 제공 기간
보험가입 익월부터 보험 유지기간 종료일까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서비스 중단 요청 시 해지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신청
(피급여자 본인에 의한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 또는 교직원공제회 보험콜센터(1577-3993 발신 후 2번)를 통한 이용신청 동의)

- ② 헬스케어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 수신
- ③ 헬스케어센터 ☎02-3449-3532
- ④ 서비스 이용



단, 본 서비스는 향후 상품 리모델링, 제휴회사 변경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상단 보험메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보험메뉴에서는 교직원 맞춤형의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유용한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는 교직원라이프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 Life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The-K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7. 1. ~ 7.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9. 1. 이후

6월호 퀴즈 정답

- QUIZ 1. O
- QUIZ 2. O
- QUIZ 3. X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학교를 세운 공연예술 문학의 독보적 선구자로, 우리 연극사 중 신파극에서 정통 근대극으로의 전환 과정에 징검다리를 놓은 인물은 '현철' 선생이다.
(p.12~15 「역사 속 숨은 영웅」 참조)



2 푸르른 녹음을 가로지르는 불정자연휴양림 짙라인, 영감을 따라 펼쳐지는 절경을 감상하는 철로 자전거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구미다.
(p.36~41 「방방곡곡 숨은명소」 참조)



3 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최대 20~70%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공제회 직영호텔은 서울, 경주, 제주, 설악산, 지리산 총 5곳에 위치하고 있다.
(p.54~57 「The-K Focus 1」 참조)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5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770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념일이 몰려 있는 5월. 그중에서도 ‘The-K 매거진’ 독자인 교육가족들을 위해 기획한 스승의 날 관련 코너에 회원님들의 따뜻한 감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육 가족들이 서로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위로와 힘을 낼 수 있었다는 회원님,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의 김영만 원장님과 ‘역사 속 숨은 영웅’의 색동회 기사에 감명을 받았다는 회원님 덕분에 편집실도 함께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일상에서 씬, 감동, 깨달음을 얻고 계신다는 많은 교육가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The-K 매거진’ 5월호도 잘 읽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교육가족이 서로에게 보내는 스승의 날 감사 편지를 읽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교사를 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이런 글을 보면서 남은 달을 아이들을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놓칠 수 있는 공제회 복지 혜택도 하나의 기사로 잘 정리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The-K 매거진’을 구독하고 있는 공제회 회원님께도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응원을 보냅니다.

안*우 회원 좌동초등학교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어 스승의 날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스승의날 감사 메시지 기사를 읽다 보니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동료나 선배님들께 저도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The-K News’에서 한눈에 잘 보이도록 매달 공제회 주요 소식과 이벤트 일정 등을 정리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열심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도 기대할게요!

김*우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매달 1일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매일 응모하는 커피 쿠폰 당첨의 행운을 기대하며 ‘The-K 매거진’은 아침의 시작을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5월호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 나오셨네요. 너무 감동이에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도 놀랍고 좋지만 기존에 알던 내용 중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쁨도 참 좋아요! 많은 정보와 거기에 감동까지 주는 ‘The-K 매거진’, 항상 감사드려요! 저에게는 이곳이 스승과도 같은 곳이지요. 배우고 감동하고 함께 성장하니깐요. 종합선물 세트 같은 ‘The-K 매거진’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볼게요.

윤*영 회원 파주 한가람초등학교

매달 새롭고 질 높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주는 ‘The-K 매거진’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바쁜 교직 생활 중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The-K 매거진’이 전해지면 반가움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구성되는 내용 또한 어찌나 풍성한지 이벤트도 참여할 겸 하루 한 번은 꼭 방문하게 되네요. 현재도 만족하지만,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한국인의 밥상’처럼 우리나라 곳곳의 우리 음식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뿌리 찾기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리 회원 경북보건대학교

매월 초 ‘The-K 매거진’을 읽으면서 보이는 노력,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자신의 안위나 지위 등을 생각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또 인류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분들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를 해보아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지만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봉사 활동이라도 해보아겠다고 다짐합니다.

신*호 회원 서울대학교

이메일로 받고 대충 제목만 보고 지나치던 ‘The-K 매거진’을 우연한 기회에 자세히 살펴볼게 된 후 ‘참 정성스럽게 만드는구나. 내용도 다양하고 읽을거리가 많군’ 등의 느낌을 받았습니 다. 이후 ‘The-K 매거진’을 받을 때마다 이제는 기사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은 캡처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 참여하는 열혈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5월호의 고 민 상담소 기사를 읽으며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 아이들이 소속감과 자율감 그리고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영 회원 서강대학교

공제회에 가입한 지 13년 되었습니다. ‘The-K 매거진’도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기는 했으나 업무가 너무 바빠 자세히 보지 못하다가 이번 연휴에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알아두고 챙겨 보면 좋은 공제회 복지 서비스 모음집’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혜택이 많았는데 그동안 하나도 이용해 보지 못했네요. 선배님들을 보니 여가도 즐기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학교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거진에 회원분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후기를 실어주시면 저 같은 초보가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매달 꼭 챙겨 보겠습니다.

하*준 회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The-K 매거진’ 5월호도 잘 읽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관련 기사가 많아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The-K 매거진’을 보면서 많은 것이 좋았지만, 특히 QR코드가 기사 곳곳에 있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 좋아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검색할 필요가 없이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접근성과 편리성까지 고려한 ‘The-K 매거진’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안*희 회원 前 서울목동초등학교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매달 ‘The-K 매거진’을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는데, 올 초에 개인적으로 엄청 충격적인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마음심’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5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여 정말 오랜만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아닌 남에게 애정과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숙제처럼 저를 살피고 알아보는 과정 중이지만 이를 도와준 ‘The-K 매거진’에 감사를 드려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님들이 꼭 한번 이용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숙 회원 강릉초등학교

매달 초 ‘The-K 매거진’을 보며 마음의 양식을 쌓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팁을 카테고리화해 안내해 주시니 교사로서 저도 돌아볼 수 있고, 지도할 때 새로운 것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꼭 교육 분야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건강, 재테크, 공제회 제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시니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선생님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음 써주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배*영 회원 서울대치초등학교

퇴직하고 나서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The-K 매거진’을 다달이 읽고 부터는 세상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으면서 현재 교육현장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인생 이모작’에서 퇴임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면 내 자신도 추스르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5월호 ‘마음심’ 코너에서 건강한 대인관계 유지방법을 읽으면서 관계유지를 위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알아두고 챙겨보면 좋은 공제회 복지서비스 모음집’은 아예 잘 오려서 철해두었습니다. 두고두고 실속있고 풍성한 혜택을 누리 보고요.

정*숙 회원 前 문장중학교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의 김영만 원장님에 대한 글을 읽고 나이가 들수록 순수성을 상실한 채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서글픔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평생 아이처럼 순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평생 성장하게도 한다’는 문장 덕분이었습니다. 스승과 주변에서 전해 주었던 사랑은 빛바랜 지 오래이고, 순수는 잃은 지 오래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랑은 내면에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순수해지기도, 성장하기도 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를 통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는 ‘The-K 매거진’이 있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경 회원 칠금중학교

‘인생 이모작’ 코너를 통해 퇴직 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독서의 기쁨을 알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고, 나오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동지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 저에게도 ‘10평 이상의 장소와 1,000권 이상의 장서, 6석 이상의 좌석’이라는 구체적인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The-K 매거진’이 보여준 따뜻한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희 회원 울산대학교병원

저는 5월호에서는 ‘마음심’ 코너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대인관계 칼럼이 제일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고 서먹해진 부분이 바로 대인관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선후배 관계가 이전처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끈대라는 소리를 안 듣고 편하게 후배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칼럼에서 알려주신 서로를 알아가는 개방성, 서로를 지켜주는 경계,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존중 등을 통해 상호 스트레스 없는, 나이·직위를 허무는 부드러운 수평적 직장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 회원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교육기관 내 다양한 직종 간 의견도 듣게 되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낍니다. 저 역시 교육 현장 일선으로 인사 이동이 있게 되면 직접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임을 절실히 느끼고 가끔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The-K 매거진’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나 혼자만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알고는 합니다. 항상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활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The-K 매거진’의 번창을 기원하며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김*호 회원 교육부

초임 때 행정실 직원 추천으로 공제회에 가입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지만 ‘The-K 매거진’은 작년 1학기에야 처음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유익한 내용이 많아 시간 날 때마다 찾아 읽고 있습니다. 더구나 5월호에는 오래전 함께 근무한 선배 교사의 이름이 스승의 날 감사 편지 코너에 나와 무척 반가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 안팎으로 우울한 일이 많은 요즘, 소식지를 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달 훌륭한 잡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 회원 진평중학교

「The-K 매거진」이 나왔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두근두근합니다. 매달 행사와 기념일, 시기에 맞는 다양한 기사로 그달 기념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5월호의 경우 영원한 우리들의 선생님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과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보며 늘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안내해 주셔서 교직원공제회 소속이 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듭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셔서 더욱 풍성한 「The-K 매거진」을 만들어주세요.

김*진 회원 남양주 구룡초등학교

카톡으로 매거진을 볼 수 있어 편리해요.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부, 초등, 중등 등 다양한 학교급에서의 이슈를 다뤄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학교급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교직계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더욱 협력하게 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 회원 서촌초등학교

5월호 '배움 더하기' 기사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부터 '꿈 너머 꿈'의 교육연구회 소식도 좋았습니다. '미래 잡(job)자'의 내용도 놀이하듯 공부하자는 내용을 저학년 수업에 하는 데 꼭 기억하기로 했고, '고민 상담소'도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교실 아이들도 그렇게 집에 있는 자녀도 관계의 능동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 상담소' 내용이 무척 공감되었습니다. 사회문제와 연결해 다양하고 풍성한 「The-K 매거진」을 접할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늘 발전하는 「The-K 매거진」을 응원합니다. 교사들의 긍지입니다.

박*미 회원 동양초등학교

솔직히 「The-K 매거진」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문득 문자메시지로 날라온 매거진을 읽고 일상에 잠시 여유를 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이벤트로 구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노력 또한 엿보였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더욱 활용해 홍보한다면 20대 젊은 세대에서도 관심을 더욱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저 또한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앞으로도 일상 속 여유를 찾기 위해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좋은 글, 항상 감사합니다.

유*화 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매달 잘 챙겨 보고 있는 「The-K 매거진」의 5월호는 특히 더욱 따뜻하네요. '생각 나누기'에서 소개해 주신 스승의 날 감사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묵묵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랑 담긴 북잉국의 추억 에세이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제지정을 나누는 따스함도 느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시선도학교를 운영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배움 더하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과 교육 수단으로 급부상한 시로 달라지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보고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백*주 회원 군포 광정초등학교

「The-K 매거진」 OX퀴즈를 풀다 장기 숙박을 하면서 1인당 연간 20만 원까지 객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The-K 휴스테이를 알게 되었다. 다각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며 5월 여행 계획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고 해당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제는 '스승의 날'이라는 말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시점에 '생각 나누기' 코너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해 감사 편지를 보내 서로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사연 하나하나가 참 가슴 따뜻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님, 감사합니다.

정*주 회원 서울개롱초등학교

매월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서서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The-K 매거진」에 담겨 바쁜 일상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 선생님께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 하더라도 더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서로 조금 달라 배울 점도 많고요. 이런 마음이 언젠가 교육 수요자들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그런 소식을 앞장서서 전해 주시는 「The-K 매거진」,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 회원 서울대영초등학교

바쁜 업무 처리를 하는 와중에도 여행, 인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는 「The-K 매거진」뿐 아니라 공제회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게 만드는 소소한 재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담당 직원분들의 수고로움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늘 새로운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소소하지만 기쁜 시간을 맞볼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호에서는 '우리 어렸을 적에'에 나온 내용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기념행사나 축제가 많지 않던 그 시절에 어린이날 넓은 야외 체육관에서 경쾌한 어린이날 행사가 문득 떠올라 잠시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잠시나마 추억을 떠올려볼 수 있는 아이템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희 회원 난곡중학교

「The-K 매거진」은 시간을 내어 읽고 나면 뿌듯하고 잘 읽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2023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신규 교감입니다. 발령과 동시에 크고 작은 다양한 행정 업무와 업무 지원, 민원 상담 등을 수행하면서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관리자가 되면 수업에서 자유롭기에 정시 퇴근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많은 날 초과근무를 하면서 나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방곡곡 숨은 명소', '마음살' 기사를 반복해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 격변하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하게 사명의 길을 걸으며 늘 힘이 되어주는 교장, 담임, 전담,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기타 선생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김*홍 회원 부산 명일초등학교

어린이날 하면 아이들은 그저 쉬는 날인 줄만 알지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과 그 의미, 그리고 그날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것에 대해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하루 동안 즐겁게 놀고 생활하며, 이날을 기리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는데 마침 5월호에 게재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색동회, 길이길이 마음에 두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의성이 있는 역사 자료, 계기 자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호 회원 대구회원초등학교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한층 앞당겨졌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The-K 매거진」의 '배움 더하기' 카테고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 교육 현장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개인의 능력치를 고려해야 하고, 교사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겠지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는 시와 차별화된 개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공감과 배려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지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 「The-K Focus」 코너에서 공제회 복지 서비스를 한 번 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족 행사가 많은 5월 교직원공제회의 숙박 문화 혜택을 누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호 소식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이 회원 인천신현북초등학교

예전에 이현아 선생님의 연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The-K 매거진」 '꿈 너머 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네이버 카페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에도 좋은 자료가 너무나 많아 보석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저 또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창작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은데 방법적 측면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앞으로 공제회에서 그림책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면 매우 유익하고 반가울 것 같아요. 「The-K 매거진」 기사 중 2개는 유튜브에서도 만나 볼 수 있어 매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며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송*경 회원 의왕덕성초등학교

이번 5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에는 반가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릴 적 TV 프로그램에서 보던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원장님이신데요,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종이접기를 통한 교육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 중 '교사가 할 일은 평가가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관계의 첫걸음이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활동 중심의 개별 맞춤형 교육, 따뜻한 공감과 배려의 감성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직 생활이 많이 남은 저에게 좋은 생각거리를 주는 기사였습니다.

서*웅 회원 행안초등학교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개된 30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익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K)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매월 50분을 선정해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웹진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7. 1. ~ 7. 31.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9. 1. 이후

지금쯤 댓글 남길 시간!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7. 1. ~ 7. 15.
- 응모 방법 :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② 「The-K 매거진」 7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③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9. 1. 이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28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엑스레이로 '예술' 하는 별난 의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엑스레이 아티스트
정태섭 교수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누구든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지만, 삶의 관성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 정태섭 교수 역시 의사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아도 충분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는 '엑스레이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인생 경로를 향해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The-K 매거진, 7월 즉석 당첨 이벤트」

찌는듯한 무더위 속 「The-K 매거진」이 선사하는 한줄기 휴식

습한 장마를 겨우 이겨내면 연이어 찾아오는 더위에 지치는 7월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을 해치지 않게 체온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죠.
「The-K 매거진」이 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해 시원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 2023. 7. 1. ~ 7. 31.

1,0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모바일 상품권

1,0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3. 9.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

